

70년의 시간이 만들어낸 깊이와 위용,
청석교육역사관



1957년, 개교 10주년을 맞이한 청주대학교는 지금의 우암산 기슭으로 캠퍼스를 이전하면서 새 건물을 지어 올렸습니다. 설립자 청암 김원근 선생이 직접 설계에 참여했을 정도로 각별한 애정을 과시했던 붉은 벽돌 건물은 처음엔 법과대학 건물로 사용되다가 제1강의동으로, 다시 청석학원의 역사관으로 용도를 달리 하며 청주대학교의 역사와 함께해 왔습니다. 현재 우리대학의 교육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보존하고 있는 청석교육역사관은 1985년 부분적인 내부 리모델링 공사를 거친 했지만 외관은 여전히 건립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며 70년의 시간이 만들어낸 깊이와 위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청주대학교
CHEONGJU UNIVERSITY

360-764 충북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298
Tel. 043-229-8011 Fax. 043-229-8015

WOW **CHOCH**

Window of the World

Cheongju University Magazine

2013 Spring Vol. 66

WOWCHOCH

2013 SPRING VOL. 66

Special Theme

Glocal University

청주대학교,

건축 디자인으로

천 년의 도시 청주를 깨우다

Glocal Report

한·중합작 학생영화 제작하는 영화학과

WOW People

세계적인 성악가 연광철 동문

청주대 축구팀 이영진 신임감독

CHEONGJU UNIVERSITY



청주대학교
CHEONGJU UNIVERSITY

지역과 함께

미래를 연다

세상의 기준은 '나'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은 나의 첫 번째 세계이자
함께 성장하고 나아가야 할 소중한 동반자입니다.

청주대학교는 충북 지역의 글로벌 거점대학으로서,
지역과 세계 모두를 품고자 합니다.

지역의 자랑에서 세계의 자부심이 되겠습니다.
세계로 향하는 가장 넓은 창이 되겠습니다.

세계로 간다



청주대학교 소식지의 새로운 제호인 (WOW 청대)는 '세계를 향한 창(Window of the World)'이라는 의미와 함께 청주대 캠퍼스가 위치한 우암산의 또 다른 이름인 '와우산'과 청주대의 발전과 성장에 감탄하는 의성어 '와우(Wow)'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Cheongju University Magazine
2013 Spring vol. 66

Contents

02 President's Message 총장 인사말

Special Theme

- 06 Special Opinion 건축학과 김태영 교수
- 10 Academic Union 건축 디자인, 도시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다
- 12 Special Report 근대화유산들을 보존하는 사람들, 도쿄모모 코리아

Glocal Report

- 16 Global Today 인터넷서널 빌리지에서 만난 외국인 유학생 3인방
- 18 Global Challenge 세계 2대 강국, 미국과 중국에서의 유학생생활 체험기
- 20 Local Together 4년제 대학 최초의 한·중합작 학생영화 제작기

WOW People

- 24 청인보(淸人譜) 제1장 세계 정상에서 부르는 아리아, 연광철 동문(음악교육과 84)
- 28 청인보(淸人譜) 제2장 가야금 선율로 세상과 소통하는 송정연 동문(한국음악과 95)
- 30 청인보(淸人譜) 제3장 23년 열정의 축구인생, 이영진 감독(청주대 축구팀 신임감독)
- 32 청인보(淸人譜) 제4장 청주복지재단 초대 이사장, 남기민 교수(사회복지학과)
- 34 청인보(淸人譜) 제5장 세계적인 제품디자이너를 향한 꿈, 원은영 학생(산업디자인학과 10)

36 Photo Essay 봄날의 나무처럼

Issue & News

- 38 Focus On 2012학년도 학위수여식 개최 외
- 42 News Brief 표갑수 교수 등 교직원 10명 퇴임식 개최 외
- 44 People News 교수소식 김찬석 교수, 취업을 위한 자기 PR 가이드북 출간 외
동문소식 조철호 동문, 충북예총 신임회장 선출 외
- 46 Special Lecture 명사초청 특별강좌
- 48 Donation Guide 발전기금 종류 및 기부방법 안내

WOW 청대 2013년 봄호(통권 66-1호)
발행일 2013년 5월 24일 | 발행인 김윤배 | 편집인 윤기택 | 발행처 청주대학교 대외협력실 Tel. 043-229-8011
360-764 충북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298 | 기획 및 디자인 ㈜꽃피는청춘 Tel. 02-3142-7373
촬영 이원재 | 취재 이은형



지역의 사랑에 힘입어

세계의 자랑, 청주대학교로 거듭나겠습니다

아름다운 청주대학교 캠퍼스에 봄날이 지나고 있습니다. 청주대학교의 역사와 함께 자리를 지켜온 나무마다 최고의 색을 내보이며 우리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 잊지 못할 2013년의 봄을 선사합니다.

그동안 청주대학교는 광복 후 최초로 설립된 4년제 대학의 자부심으로 '교육구국(教育救國)'과 '실학성세(實學成世)'의 교육이념을 실천해 왔습니다. 청주대학교의 역사는 가치 창조의 역정이었습니다. 66년을 넘어서는 오랜 역사와 8만 5천여 동문들, 지역사회에서 보내준 아낌 없는 성원이야말로 우리 청주대학교의 자부심과 긍지입니다. 열정으로 학생들을 이끄시는 교수님들, 꿈을 향해 거침없이 도전하는 학생들, 또 세계 곳곳에서 활약하며 모교의 자랑이 되고 있는 동문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청주대학교 모든 구성원의 남다른 정성이 우리의 역사와 전통 속에 생생히 살아 숨 쉬고 있음을 언제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최근 청주대학교는 중부권 최고의 명문대학을 넘어 세계 속의 글로벌 중심대학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장학·학사제도 개편에 전력을 기울여 세계에서 당당히 활약할 수 있는 인재를 길러 내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장기발전계획인 '글로벌 비전 2020'을 통해 교육과 연구, 행정, 시설 등에서 글로벌 스탠더드를 구축해나가고 있으며, 특히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 청주대학교의 입시경쟁률은 매년 높아지고 있으며, 입학 성적도 매년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는 대학으로 발돋움하기도 했습니다.

세계 우수 대학들과 맺은 협력의 가교와 우리 전통문화를 소중히 여겨온 학풍은 21세기 정보화시대를 살아가는 학생들에게 더욱 유용하리라 생각합니다. 청주대학교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지니고 있는 큰 에너지는 서로에게 전해져 더 큰 청주대학교의 미래를 만들어가리라 믿습니다. 첨단 학문과 자연의 어우러짐 위에 전통과 역사가 강하게 숨 쉬고 있는 청주대학교를 지켜봐 주십시오. 지역의 자랑에서 세계의 자랑으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주대학교
총장

김원배

Special Theme

Glocal University 청주대학교,
건축 디자인으로
천 년의 도시 청주를 깨우다

건축 디자인은 도시의 이미지를 결정짓는 가장 큰 요소 중 하나입니다.
도시는 지역의 문화와 역사, 환경을 품고 있는 거대한 삶의 공간이기에
도시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요소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화합할 때,
비로소 도시는 제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내일을 꿈꾸는 모든 도시의 고민은 좀 더 촘촘하고 치열해야 합니다.
도시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 내일을 보는 혜안이 도시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문화가 물결치는 도시로의 진화를 꿈꾸는 청주.
오랜 전통과 역사성 위에 청주의 뜨거운 열정과 창의를 담아낼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청주대학교는 그 해답을 건축 디자인에서 찾고자 합니다.
지역과 함께 고민하고, 지역의 이야기를 오롯이 담아낸 건축 디자인을 통해
청주대학교가 충북 지역의 글로벌 시대를 리드하는 대표 대학으로 거듭납니다.
지역과 함께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진정한 글로벌은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06 Special Opinion

건축학과
김태영 교수가 들려주는
청주 도시건축의
방향과 미래



10 Academic Union

청주시
건축 디자인을
함께 고민하는
청주대학교

12 Special Report

건축과 도시의
근대문화유산을 지키는 사람들,
도쿄모모 코리아

모더니즘의 동시대

Contemporary of Mod
- 청주연초제조창의 문
Cultural Conversion of The Cheongju

Special Opinion

문화가 물결치는
도시로의 진화,

건축 디자인에서
그 해답을 찾다

청주라 하면 직지, 철당간, 무심천, 우암산, 플라타너스길이 가장 먼저 생각나고, 그 다음으로 상당산성, 청주읍성, 청주동헌, 병영문과 같은 문화재, 그리고 성안길, 중앙공원, 육거리시장, 흥덕사지 등의 넓은 공간이 떠오른다. 통일신라시대 서원소경 설치(685년) 이후 행정의 중심적 역할을 해온 것은 물론, 1400여 년 이상의 도시문화 역사를 지닌 곳이기도 한 청주에는 962년, 현존하는 국보 41호 용두사지철당간이 건립되었고, 1377년 현존하는 최고(最古)의 금속활자 직지가 청주 흥덕사에서 간행되었으며, 1487년에는 현재까지 도심의 주 보행로로 남아있는 청주읍성곽이 설축(設築)되면서 1651년에는 해미에서 충청병마절도사가 옮겨왔다. 또한 1911년부터 1914년에 걸쳐 청주읍성이 파괴되면서 남북방향의 기다란 선형의 격자도시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청주의 도심은 오래 전에 형성된 공간구조를 그대로 지니고 있으며, 그 조직 안에 역사문화자원 이외에 여느 도시에서 찾아 볼 수 없는 낮고 두텁게 형성된 일상적인 건축물 경관자원이 있다. 문화와 전통을 지닌 도시 청주가 미래의 새로운 건강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가능성이 이들 자원에 있다. 문화가 물결치는 도시로 진화하기 위해서 청주만이 아닌, 청주다운 새로운 환경, 도시, 건축디자인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김태영 건축학과 교수

김태영 교수는 홍익대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에서 석·박사 과정을 마친 후 교토대학 연구교수를 거쳐 1991년부터 우리대학 건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2012년, 제5대 도쿄모모 코리아(DOCOMOMO-KOREA) 회장으로 선출되어 도시와 건축을 포함한 우리의 근대화유산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상당구 산성동에 위치한 상당산성

사진제공 : 청주시청 관광과

도시공간구조의 형성과정에서 디자인 아이디어를 읽어낸다

청주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우암산과 무심천일 것이다. 남북으로 길게 드리워진 우암산은 상당산성, 나아가서는 노령산맥의 자락에서 뻗어 내려와 도심부에 와서는 주산(主山)인 당산(唐山)에서 끝나고 있다. 도심부를 흐르는 무심천은 상당산에서 흘러오는 금천(쇠내, 현재는 복개)과 합류하는 지점인 탑동의 야산에서 곡류부(曲流部)를 이루다가 매몰된 남석교를 지나, 모충동 고개 언저리에 위치하고 있는 고당 마을의 구릉지에서 또다시 굽이치면서 거의 직선으로 북류한다. 남에서 북쪽으로 역수(逆水)하는 무심천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곡류부가 청주 도심부의 원형인 것이다. 결국 오늘날의 청주 도심부는 우암산과 당산의 지형지세에 따른 무심천의 역수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현 석교동과 서문동쪽으로 넓은 모래사장이 형성되었으며, 이를 두고서 청주는 풍수지리상 행주형(行舟形)의 형국, 즉 주성(舟城)이라 일컬어져 왔다. 바로 이곳에 청주 도시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읍성이 설축된 것이다. 청주읍성은 청주시의 핵심적인 장소이면서, 도시 및 건축사적 기점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청주읍성을 중심으로 한 사주면(四州面)이 청주의 원도심이며, 사방으로 뻗어나간 것이 오늘의 청주이다. 청주읍성 이야말로 청주의 도시와 건축 환경의 시작이고, 원형이며, 기준점이다. 여기서부터 오늘날의 청주라는 도시가 형성된 것이다. 남북방향을 장축으로 한 400×600m 크기의 방형(方形) 성곽은 없어졌으며, 그 흔적은 가로망으로 현존하고 있으며, 성안길을 비롯하여 동서남북의 4대문으로 이어지는 가로망, 동헌(東軒)과 병영(兵營) 및 사창(司倉) 영역, 압각수, 영문, 철당간 등의 유구도 현존하고 있다.

이외에도 읍성 남문 밖 남문로 1가동과 남주동의 수많은 민가들도 모습은 달라졌지만, 자리하고 있는 대지(垓地)의 모양이라든가, 예전의 수로(水路)인 나룻가지 모양의 골목길은 여전히 현존하고 있다. 그야말로 청주의 소중한 역사문화적 유형자산인 것이다. 청주읍성곽의 형태와 구조, 읍성 내 건축 및 시설물에 대한 우리의 보호 및 재현 노력에 못지않게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바로 청주읍성 안팎에 내재되어 있는 역사적인 도시공간구조이다. 가로망과 가구(街區) 및 필지형태에 있어서, 읍성 파훼 이후 100여년이 지난 현재에 이르기까지 예전의 공간구조를 그대로 지니면서 발전하여 왔음을 볼 때, 새로운 건축물을 디자인함에 있어서도 이들 도시공간구조의 변천과정에 나타난 역사적 맥락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간직해야 할 것, 창조적으로 계승발전시켜야 할 것에 대한 시각조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청주시내 전역을 흐르는 무심천 야경



청주고인쇄박물관 내부

낮고 두터운 건축물 경관자원을
재생한다

청주읍성을 중심으로 형성된 성안동, 중앙동 일대는 예전의 청주 읍성곽을 그대로 지니면서 남북방향으로 정연한 도로망과 무심천, 5층 정도 건물 높이의 일정한 스카이라인, 그리고 청정한 도시 가로경관 등 타 도시가 갖고 있지 않은 요즘 건강도시에서 지향하고자 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도심의 중심부인 성안동과 중앙동의 건축물 총 5,200여 동 중 3층 이하의 건축물이 80%, 5층 이하의 건축물이 96%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의 도시가 높낮이를 달리하면서 수직적인 높이 경쟁을 하고 있을 때, 청주는 수평방향으로 전개되어 도시의 질서를 유지하여 왔다. 낮고 두터운 군집형태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다른 어떠한 역사도시에서도 볼 수 없는 중요한 도심 경관자원이다. 계시탈트 심리학에서 '그림'(圖, figure)과 '바탕'(地, background) 이론이 있다. 그림과 바탕 중 어느 쪽을 중시하느냐에 따라 커다란 차이가 나타남을 말하고 있는데, 청주의 건축은 1970년대, 아니 가깝게는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그림'으로서의 건축이라기보다는 '바탕'의 건축이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눈에 띄는 초고층 아파트와 대규모 오피스텔이 나타나 '그림'의 역할을 연출하고 있다. 지금은 오히려 평범한 건축물이 '그림'이다.

5층 정도의 규모로 이루어진 청주 도심의 저층 경관은 '바탕'으로서의 훌륭한 자원이다. 자연환경을 인식하게 해주는 일상적이고 평범한 '바탕'으로서의 건축물의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디자인의 실례는 일상적이고 평범한 옛 건물, 특히 일반 서민주택의 증·개축 과정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다. 거기에 그들의 삶의 과정에서 나타난 많은 지혜가 깃들여 있다. 예스러워서 좋은 것은 남고, 새로워서 좋은 것은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청주만의 독특한 특성은 평범하고 일상적인 건물에서 찾아내야 할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기존의 환경, 기존의 건축물에 콘텐츠를 담는 노력도 수반되어야 한다. 세월을 담고 있는 훌륭한 기존 건축물의 보전과 재생으로의 시각조정이 있어야 청주에 살아있는 역사가 존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전문문화재를 복원하고, 근현대건축문화재를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창조적 보전활동이 있어야 할 것이다. 새로운 건축물을 건립하기보다는 지역의 기존 건축물을 보호한다든가, 현 생활에 맞게 변경, 수리하여 다시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기존 환경을 중시하면서 오랜 세월을 겪은 작고 소담스런 건축물 자체가 친환경적 요소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바이오, 태양광, 수력, 바람 및 지열 등의 재생에너지를 가미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오랜 세월을 겪은 기존의 기후적, 관습적 환경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노력에 있다.

도시 및 건축 환경의 재생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기존 환경에 대한 중시일 것이다. 왜 이 곳에 터를 잡았고, 오랫동안 바람과 열에 대응하여 어떠한 변천과정을 겪어 왔으며, 현재의 생활방식에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가에 대한 숙지를 통하여 기존 건축물뿐만 아니라 도시공간의 적응적 재사용(Adaptive Reuse)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새로운 환경 및 건축물을 입안하고 프로그램을 설정할 때에도, 기존 도시공간구조가 담을 수 있는 적정량의 규모가 산정되어야 하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줄여나가는 방식의 채택이 올바르다고 본다. 기존 건축물의 작은 규모가 조금은 불편해도 자주 활용될 수 있으며, 에너지도 절약될 수 있다. 유지관리만 제대로 이루어지면 건축물은 장수할 수 있다. 도심 한옥이 겨울에는 불편해도, 한여름에는 골목길에서 마당으로 불어오는 바람으로 선선하다.



상당구 남문로에 위치하고 있는 고려시대 용두사지 칠당간

사진제공 : 청주시청 관광과

단순, 솔직, 겸손한 건축물을
디자인한다

맑고 깨끗함, 푸름을 뜻하는 '청주(淸州)'를 물리적인 조형 언어로 바꾸게 되면 단순함, 명확함, 솔직함일 것이다. 현재와 같이 복잡다단한 사회일수록 단순함에 대한 추구는 더욱 필요한 법이다. '단순하고 솔직한 건축'이란 지면(地面)에서 시작하여 아래 벽이 두껍고 위로 올라갈수록 얇아져 가는 것이고, 재료사용에 있어서도 그 속성과 특질을 그대로 살리고, 건물 자신의 두드러진 개성보다는 지역 환경을 우선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는 무심천과 남북으로 기다랗게 자리 잡은 우암산으로 인하여 청주의 도시공간구조 역시 남북방향으로의 기다란 선형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우암산의 주봉(主峰)이 비교적 명확하지 않고, 낮기 때문에 이러한 남북방향으로의 축성(軸性)은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 이를 건축적 용어로 바꾸어보면, 수직적 욕망이 아닌 수평적 질서 혹은 겸손함이 아닐까 한다. 이처럼 청주의 역사적, 지리적 특성에서 유추해 본 '단순하고 솔직한 표현으로서의 건축', '욕망이 아닌 겸손한 표현으로서의 건축'을 지향하는 것이야말로 청주 건축의 올바른 방향일 것이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건축행위 시 건축물 자체보다는 자연, 혹은 주변 환경으로의 시각을 조정하는 것이다. 하나의 건축물, 건축물 군, 나아가서는 도시를 계획함에 있어서도 끊임없이 변화하는 유기체로서의 자연환경을 먼저 생각하고, 이와 더불어 지역만의 독특한 인문·자연환경, 혹은 도시공간구조 속에서 생겨나는 기억의 공감대가 함께 이루어지게 되면 그야말로 진정한 청주의 도시건축문화가 재탄생하게 될 것이다. ㉑

청주만의 역사적 도시공간구조 및 낮고 두터운 건축경관자원의 잠재력을 바탕으로, 현존하고 있는 최고의 금속활자 '직지'를 만들어낸 훌륭한 정인들의 디자인 정신을 계승하면서 공예, 건축, 공공디자인이 함께 하는 청주 도시건축의 미래상에 대한 아이디어 구상도

Academic Union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건축 디자인,

도시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다

독특한 공간이나 건축물은 한 도시를 상징하는 랜드마크가 되어 도시를 새롭게 탄생시키는 결정적 역할을 하기도 하고, 분야별로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며 도시 전체에 대한 이미지나 정책의 방향성을 완전히 바꿔놓기도 한다. 최근 우리대학은 청주를 비롯한 충북 지역에 대한 끊임 없는 고민과 참여를 통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건축과 디자인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도시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글로벌 대학을 향한 청주대학교의 노력은 이렇게 도시 곳곳에서 감지된다.



2011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전시공간으로 탈바꿈한 옛 청주연초제조창

옛 청주연초제조창, 녹색문화공간으로 변신하다

안덕벌 일원에 훑물처럼 버려졌던 담배 공장이 청주를 대표하는 문화공간으로 거듭난 것은 2011년 열린 청주국제공예 비엔날레였다. 청주연초제조창은 국내 첫 아트 팩토리로 거듭나며 이후 그 가치를 인정 받아 국립현대미술관 지방분관 까지 유치하기에 이르렀고, 2011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얼마 전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조직위원회는 옛 청주연초제조창 일원인 안덕벌을 녹색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야심 찬 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위해 스트리트 퍼니처, 역대 공공미술작품 재배치, 재활용 공예교실, 국제건축디자인캠프 등의 사업을 전개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 중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와 충북건축가협회 주최로 열린 국제건축디자인캠프의 캠프장으로 우리대학 건축학과 김태영 교수가 추대되어 활동하고 있다. 100여 명의 국내외 건축가와 유명 디자이너, 안덕벌 주민이 함께 참여한 이번 캠프에서는 참가자 모두가 옛 청주연초제조창을 둘러본 뒤 건축, 디자인, 공원, 도로, 환경정비 등의 분야별 의견을 서로 교환하고, 가장 적합한 모델을 제시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이를 토대로 만들어진 도면과 모형도 등의 최종 결과물은 오는 9월 열리는 2013 청주국제공예 비엔날레 행사장에서 일반인들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청주대 건축학과 재학생들 역시 현장실습 등을 통해 도심 재생과 방치된 건물의 문화공간화를 꾸준히 연구하고 있어 이후 안덕벌 일대의 문화공간으로의 변신에 다방면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주시 문화의 거리 조성, 그 중심에 선 청주대학교

2011년, 청주시는 청주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전통문화와 근·현대 문화유산,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생활문화 체험 등을 총망라한 지역문화 탐방로 구축을 위해 필요한 일련의 컨설팅 작업을 우리대학 문화산업디자인혁신센터에 의뢰했다. 총 11개월에 걸친 분석과 연구결과를 토대로, 청주시 문화의 거리 지정 심의위원회는 동부지역 문화탐방로와 안덕벌 예술의 거리, 남문로 한복문화의 거리 등 세 곳을 지정하였고, 현재까지 거리 조성에 필요한 다양한 자원과 육성사업들을 계속 이어오고 있다. 청주시의 거리문화를 새롭게 조성하는 일에 청주대가 주도적으로 참여해 좋은 성과를 거둔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 수 없다. 문화의 거리로 선정된 동부지역 문화탐방로는 안덕벌 예술의 거리를 시작으로, 청주문화산업단지, 붉은 벽돌 건축물(현재의 청석교육역사관, 도서관, 종합서비스센터 등이 들어선 청주대 캠퍼스, 수암골 벽화마을과 전광대, 우암산 순환도로의 생태체험 길, 삼일공원, 와우산 수도원, 성공회 수동교회와 옛 도지사 관사, 예능원, 도청, 향교와 성안길 옛 청주 동헌, 철당간, 중앙공원, 그리고 한복문화의 거리와 육거리 전통시장에까지 연결되는 코스다.



한옥마을이 들어서게 될 수암골

안덕벌 예술의 거리는 주민과 예술단체들이 함께 다양한 예술체험 프로그램은 물론, 지역의 담장 벽화사업 등을 꾸준히 진행해오고 있는 곳이다. 마지막으로 남문로 한복문화의 거리는 해당 지역의 한복점 상인들이 중심이 되어 청주 한복문화의 날 행사의 일환으로 전통혼례쇼, 한복패션쇼 등을 개최하는 등 우리의 전통 문화유산인 한복의 대중화에 힘써온 곳이다. 지난 해 이 지역은 간판개선사업을 거치면서 지저분한 돌출간판들을 모두 제거하고, 한복과 관련된 오브제들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행안부의 간판개선사업 우수 성공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드라마 촬영지로 사랑 받는 수암골, 한옥마을로 거듭나다

청주시 상당구 수동과 우암동에 걸쳐 위치하고 있는 수암골은 오래된 달동네의 정취가 묻어나는 곳이다. 한국전쟁 당시 피난민들이 모여 살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마을을 이루게 된 이곳은 드라마 <제빵왕 김탁구>, <카인과 아벨>, <영광의 재인> 등의 촬영지로 알려지면서 현재 청주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자리잡았다. 수암골의 문화적 가치 향상과 관광자원 활성화를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 청주시 수암골 한옥마을 조성사업에 우리대학을 포함한 충북 지역 대학의 교수진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 청주시 한옥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시계획학과 김영환 교수를 비롯한 13명의 위원들은 청주시가 한옥관광지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최초의 민자유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공공성과 수익성을 모두 고려한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쓰고 있다.

한편, 내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 수암골 한옥마을 조성사업은 표충사 인근 7,170㎡의 부지에 총 62억 7,500여 만 원을 들여 연면적 6,251㎡규모의 한옥 17동을 건립할 예정이다. 당초 청주시의 계획대로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한옥 체험형 민박사업을 통해 지역 관광객을 유치하고 주민들의 수익증대로 이어져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자문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충북의 교육을 대표하고 있는 청주대가 청주 동부지역의 문화를 바꿀 한옥마을의 밑그림을 지역과 함께 그리고 있다는 점이 큰 의미로 다가온다. ㉞

Special Report

한국 근대문화유산의 참 가치를 깨우는 사람들,

도코모모 코리아

근대문화유산의 새로운 탄생을 위한 훌륭한 모색, 도코모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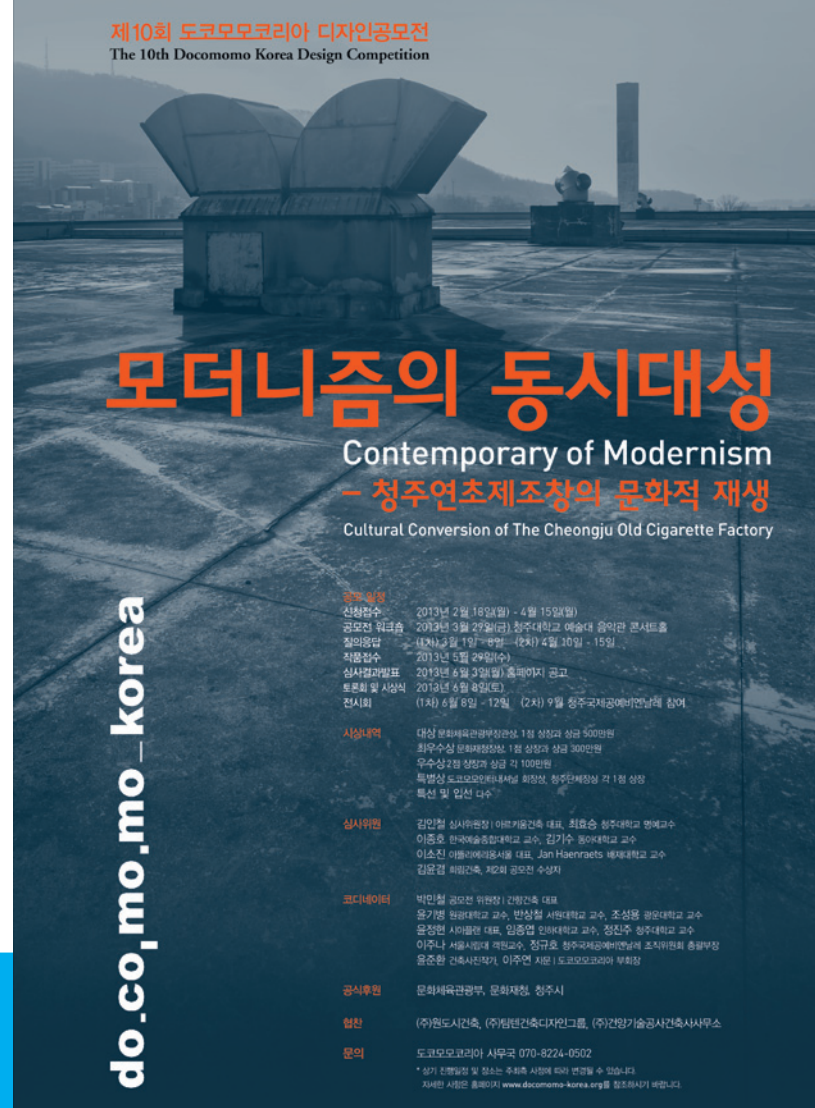
도코모모(DOCOMOMO; DOcumentation and COnservation of buildings, sites and neighborhoods of the MOdern MOvement)는 근대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국제조직으로, 근대운동이 진행되는 가운데 지어진 건축물과 그러한 건축물이 있는 대지,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한 삶을 기록하고 보존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건축역사가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가, 건축가, 도시, 토목, 조경기술자, 행정관계자, 시민 등 도코모모의 취지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폭넓게 참가하면서 도시화와 발전 논의 속에서 위기에 처한 근대건축물과 도시, 자료를 연구하고, 전문적 수준에서 한 단계 높은 보존 활동을 펼친다. 1988년 네덜란드 에인트호번 공과대학의 헨켓(Henket) 교수가 처음 구상하여 조직이 만들어진 이래 2013년 5월 현재 전 세계적으로 66개 나라가 도코모모의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다.

한국 도시와 건축유산의 공존 위한 지휘자, 도코모모 코리아

도코모모 코리아의 시작은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학술세미나 '근대건축물 보존과 등록문화재 제도' 행사에 모인 한국근대건축 연구자들이 근대건축 연구와 보존을 위한 교류의 장을 마련하는데 뜻을 모았다. 그동안 경제 논리에 밀려 사라져가는 근대유산을 찾아 보존하고 기록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었다. 2003년 5월에 도코모모 코리아를 창립했고, 2004년 9월 26일에는 아시아에서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도코모모 인터네셔널의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도코모모 코리아는 그동안 근대건축유산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단초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철거와 신축으로 대변되는 우리나라 지역개발에도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해왔다.

우리나라의 근대건축물은 대부분 1876년 개항 이후 1945년 광복 이전까지 지어진 건축물이 대부분인데, 그 연대가 일제강점기라는 이유로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부정적으로 취급되어온 면이 있다. 그러나 그 건축물들은 이미 도시환경속에서 친숙한 존재가 되어 왔으며, 시민의 삶과 함께하며 역사의 층을 형성해왔다는 점에서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다. 건축물 전체 혹은 일부를 복원하거나 개조, 전용하는 다양한 방법이 모색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더해진다면 더 가치 있는 공간으로 태어날 수 있다. 이러한 도코모모 코리아의 활동과 노력 결과 문화재청은 근대문화재과를 신설하고 등록문화재 제도를 신설하여 정착시켜 나가고 있다.

고도성장파 도시화의 거센 물결 속에서도 곳곳이 버티온 근대건축물. 하지만 도시재개발 논리에 밀려 힘없이 허물어져 가고 있다. '건축은 도시의 그릇이며 역사의 가장 뚜렷한 증거'라 했던 어느 학자의 말처럼 건축물은 과거와 현재를 잇는 그 무엇이다. 청주대학교 건축학과에 사무국을 두고 있는 도코모모 코리아는 한국의 근대건축물들에 갖든 역사적 의의를 우리 사회에 올바르게 전파하고, 현재와 아름답게 공존할 방법을 찾고 연구하는 일을 수행해오고 있다.



아시아 최초로 개최되는 2014년 도코모모 국제컨퍼런스

2014년에 열리는 제13차 도코모모 국제 컨퍼런스가 서울에서 개최된다. 아시아에서는 한국이 첫 개최국이다. 도코모모 국제컨퍼런스는 국내외 학자와 세계적인 건축가들이 참여하는 근대건축 분야 행사로 2년마다 개최된다. 2014년 차기 회의 유치를 위한 한국의 제안서 발표는 역대 가장 훌륭한 발표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근대문화유산 자료수집 작업 중인 도코모모 코리아 연구원 사무국장

'충돌과 확장(Conflict & Expansion)'이라는 주제는 아시아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고유문화 속에서 새로운 근대문화가 유입되면서 이루어지는 충돌을 어떻게 극복하며 확장되는지를 살펴본다는 점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다. 도코모모 코리아는 국제컨퍼런스를 워크숍, 전시, 컨퍼런스, 투어 프로그램 등 크게 4부분으로 나누어 준비하고 있다. 워크숍은 전 세계에서 참여하는 세계적인 건축가, 학자와 젊은 학생이 함께 숙식하며 공동 작업을 하게 된다.

도코모모 코리아의 역할과 활동, 그 중심에 선 청주대학교

옛 윤현궁 이준 저택, 명동성당, 서대문독립공원, 일민미술관, 정동도서관, 부산 옛 임시수도 대통령관저, 대구 옛 대구상업학교 본관, 인천 옛 제물포구락부, 광주 전남도청 본관 등 전국 3,000여 곳으로 추정되는 근대건축물이 도코모모 코리아의 연구 및 보존 대상이다. 도코모모 코리아는 건축물이 도시와 어떻게 함께할 수 있는지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주요 활동 외에도 근대문화유산과 관련한 컨퍼런스와 토론회, 워크숍, 전시회, 각종 근대건축 보존운동에 관한 사례조사 및 사례집 발간 사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 도코모모 코리아 주요사업

- 근대문화유산 데이터베이스 구축 | 전국에 산재해 있는 근대건축문화유산을 찾아 목록화 작업. 중요 건축물을 선정하여 이를 국가적으로 지정·등록하고 보존
- 교육 및 연구, 학술 용역 | 근대건축문화유산의 보존, 기록, 활용에 관한 지식과 정보 등 제반 자료들이 온전히 전수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 실시
- 근대건축 답사 | 근대건축문화유산 또는 도시를 방문하는 답사 프로그램 진행
- 디자인공모전 |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이나 공간을 주제로 해당 건축물에 대한 보존 및 개발 관련 디자인공모전 진행

전시는 세계의 근대건축을 비롯한 한국의 건축을 소개하는 대규모 전시가 준비될 예정이다. 또 '충돌과 확장'이라는 주제로 진행될 컨퍼런스에서는 전 세계로부터 근대건축에 관한 최고의 학문적, 기술적 성과들이 발표될 예정이다. 2014년 도코모모 국제컨퍼런스는 젊은 건축가들에게도 매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며, 한국이 세계 건축계의 주류로 편입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①



한국 도시재개발의 긍정적 대안, 도코모모 코리아 디자인공모전

TIP

도코모모 코리아가 추진하는 여러 활동 가운데 다른 회원국으로부터 가장 주목 받는 사업은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한 '도코모모 코리아 디자인공모전'이다. 이 공모전은 매년 응모자 수가 3천 명을 넘길 정도로 국내 최대 규모, 최고 권위의 공모전으로 자리 잡았다. 건축 전공 학생과 전문가, 또 일반들이 참여해 보존할 가치가 있는 장소와 건축물을 재활용하거나 보존하게 할 아이디어를 겨룬다. 그동안 신촌역사, 서울역사, 기무사 본관, 당인리 발전소, 인천 배다리 등 한국 근대사를 대변하는 주요 시설들이 공모전의 주인공이 되었다. 전문가와 일반 시민의 뜨거운 참여 속에 보존과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수많은 아이디어가 도출되었고, 결국 디자인공모전의 주제가 되는 건축물과 공간은 개발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지역주민의 삶과 역사성에 바탕을 둔 도시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역대 도코모모 코리아 디자인공모전

제1회 2004년 • 신촌역사

(POST 신촌역 2004)

민자역사 건립계획에 의해 사라져 버릴 위기에 처해있던 신촌 역사(驛舍)가 많은 시민단체의 노력과 행정당국의 협조로 보존이 최종 결정됨에 따라 이를 효과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공모했다.

제2회 2005년 • 구 국군기무사

(시간_비움vs채움)

경복궁 동편에 있는 국군기무사령부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그곳을 미술 및 문화공간으로 활용하자는 제안이 거론되어 이와 관련된 논의를 좀더 실질적이며 구체적으로 전개하고 대안 제시를 이끌기 위해 공모했다.

제3회 2006년 • 서산부인과

(도심 속의 치환)

서울 중구 을지로에 있는 서산부인과 건물은 김중업 선생의 건축관이 농밀하게 잘 나타나 있는 대표작이자 건립 당시 서울 서쪽 끝자락의 특징 없는 동네에 활기를 주던 존재였다. 용도변화를 불가피한 시대적 추세로 받아들여지고 그 외형과 남아 있는 주요 구조를 가능한 보존, 복원, 활용하여 새로운 도심 속의 보석으로 만들기 위해 공모했다.

제4회 2007년 • 서울역사

(구 서울역사 어떻게 살릴 것인가?)

1925년 준공되어 80여 동안 근·현대적 삶의 궤적을 담아왔던 구 서울역사는 2004년 경부고속철도의 개통과 함께 첨단인 모습으로 등장한 새 역사와는 어떠한 연관성도 갖지 못한 채 외면당하고 있었다. 이러한 서울 역사를 다시금 살려내 현재의 삶과 미래의 삶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찾아내고자 공모했다.

제5회 2008년 • 당인리 화력발전소

(근대산업시설과 생활문화공간의 공존은 가능한가?)

1930년 우리나라 최초의 화력발전소로 준공된 '당인리 발전소'는 석탄에서 액화천연가스에 이르기까지 에너지원의 변천 과정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근대산업시설로서 근대화된 서울의 상징이 되어 왔다. 최근 당인리 발전소를 문화 창작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변화시키려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당인리 발전소를 재해석하여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공모했다.

제6회 2009년 • 충남도청사

(공공성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도전: 도청에서 시민공간으로)

1931년 완공된 충남도청사는 70여 년 동안 대전과 충청남도 행정의 중심지 역할을 하면서 대전의 상징적 공간으로 그 역할을 해왔다. 도청 소재지 이전이 결정된 후 충남도청사의 보존과 활용이 큰 관심사로 떠올랐고, 이에 충남도청사의 보존과 활용 문제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묻고자 공모했다.

제7회 2010년 • 인천 배다리

(또 하나의 인천: 삶의 가치와 맥락을 잇다)

인천의 배다리는 한국근대도시의 상징적 존재인 인천의 원공간(原空間)이다. 낮은 건물과 좁은 골목길 안에서 근대도시 인천의 삶을 지탱해온 배다리의 일상성을 발견하기 위해 공모했다. 인천시는 2009년까지만 해도 배다리 일대를 개발 명분으로 철거하려 했지만, 현재 역사보존지구로 지정하고 있다.



제8회 2011년 • 부산 하야리아

(캠프 하야리아의 미래는)

부산의 미군 기지였던 캠프 하야리아는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이 경마를 즐기게 위해 개발되었던 지역이었다. 2006년 8월 부대의 폐쇄가 결정된 후, 근 100여 년 동안 비움의 공간으로 남아있던 이 장소가 앞으로 어떤 형태로 조성되느냐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에 하야리아 부지에 대한 창의적 해석을 위해 공모했다.



제9회 2012년 • 덕수궁

(덕수궁과 그 경계를 넘어)

근대 한국의 원공간(原空間)인 정동은 근대 교육의 발원지이자 외래 종교의 모태공간이지만, 오랜 시간 소외됐다. 한국 근현대사의 심장부인 덕수궁과 정동을 새롭게 조명하는 기회를 마련해 어떠한 모습으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야 할지 다양한 생각을 모으기 위해 공모했다.



제10회 2013년 • 청주연초제조창

(모더니즘의 동시대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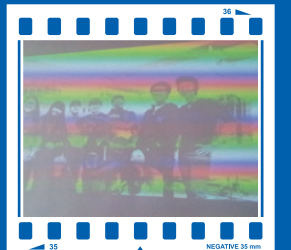
청주연초제조창의 문화적 재생)

청주연초제조창은 한때 연간 100억 개비의 담배를 생산했던 국내 최대 규모의 담배공장이었으나 지난 2004년 문을 닫았다. 65년 역사의 근대산업건축물로 10여 년간 방치됐다가 최근에는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와 국제건축디자인캠프 등 다양한 문화행사의 개최 장소로 사용되고 있다. 이에 지역의 산업유산을 문화자산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공모했다.



16
Global Today

인터내셔널
빌리지에서 만난
외국인 유학생들



20
Local Together

4년제 대학 최초의
한·중합작 학생영화
제작기

18
Global Challenge

세계 2대 강국,
미국과 중국에서의
유학생활 체험기



Glocal Report

세계 속의 청주,
청대 안의 세계

드넓은 세계를 품어 안으려는 '글로벌'과 지역과 함께 세계를 꿈꾸는 '글로벌'이 공존하는 이곳, 청주대학교에서 지역과 세계가 함께 성장하는 '조화로운 삶'의 법칙을 배웁니다.

Global Today

인터내셔널 빌리지에서 만난
유학생 3인방의
청대 라이프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청주대를 찾아온 외국인 유학생들. 청주대는 이들이 편안하고 자유롭게 생활하면서 꿈을 이뤄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9년에 인터내셔널 빌리지를 새롭게 준공했다. 국제학과와 외국인 교수 아파트, 국제교육센터가 모두 한곳에 모여 있으며, 특히 10층 규모의 국제학사는 732명이 생활할 수 있는 외국 유학생 전용 기숙사로 사용되고 있다. 말 그대로 하나의 '촌(村)'을 이루고 있는 인터내셔널 빌리지 안에서 동티모르, 몽골, 라오스에서 온 유학생들을 만나 보았다. 한국어능력시험 3급을 통과한 학생들답게 한국어 실력이 대단했다.



청대타임즈 기자예요.
기억해 주세요!

마리아 다 실바 올데리코(Olderico Da Silva)
동티모르
토목공학과 2학년 재학 중

우리도 청주대생! 청주대 캠퍼스에서 꿈을 찾아갑니다



내가 지어 올릴 건물을 꿈꾸며!

토목공학이 어렵긴 하지만, 재미나요. 어렸을 때부터 토목이나 건축물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 더 열심히 하고 싶어요. 제가 지은 건물 앞에 서보는 것이 꿈이에요. 동티모르 딜리공과대학(DILI Institute of Technology)에서 2년을 공부하다 한국행을 선택한 실바는 국립국제교육원(NIIE)을 통해 청주대를 알게 되었다. 2010년 3월에 왔으니, 3년을 꼭 채우고 넘긴 유학생이 되어 청주대를 종횡무진 누비고 있다.

청대타임즈 기자로 활약 중!

1년 전부터 청대타임즈 기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취재하고 기사 쓰는 것이 어려웠지만, 청주대 학생들과 또 유학생들에게 많이 배우면서 재미있어졌어요. 유학하면서 전공공부 말고도 자신을 대변해줄 또 다른 타이틀을 갖게 된 것이 무척 마음에 든다는 실바는 영어만큼 한국어로도 기사를 잘 쓰고 싶단다.

축구장에서 뿔 때가 가장 좋아!

축구를 워낙 좋아하는데, 청주대 축구장이 멋지고 넓어서 다행이에요. 아주 마음에 듭니다. 친구들과 공을 찰 수 있어서 좋습니다. 주말마다 친구들과 축구 경기를 즐긴다는 실바는 청주대에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들을 위해 이벤트나 행사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덧붙인다. 학생들이 꿈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는 청주대가 멋지다며 그 또한 청주대 안에서 꿈을 이뤄가겠노라고 당당히 웃는다.



제2의 나라 한국,
바다가 정말 멋져요!

간쿠약 오윙한드(Oyunkhand Gankhuyag)
몽골
경제학과 2학년 재학 중

경제학 교수의 꿈을 안고 열심히!

한국 온 지 2년 되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유학하고 싶어서 여러 장학금에 도전했는데, 한국이 몽골과 지리적으로, 또 느낌적으로 가까워 오고 싶었습니다. 한국정부 초청 장학금에 선발도 되어서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몽골 Institute of Finance and Economic에서 1학기를 공부하던 중 유학을 선택한 오윙한드는 경제학 공부에 푹 빠져있다. 정말로 하고 싶었던 공부이기도 하지만, 경제학 교수가 되고 싶다는 분명한 목표가 있기에 더욱 그렇다. 석사, 박사과정을 계속 외국에서 밟고 싶다며 청주대는 물론 다른 나라도 생각 중이다.

공원 같은 캠퍼스, 정말 훌륭해

인공폭포이긴 해도 경산대 앞 폭포는 정말 멋져요. 학교에 그런 폭포가 있는 것은 그리 흔치 않잖아요. 꼭 자연 속 폭포 앞에 있는 느낌입니다. 캠퍼스가 공원 같은 느낌이라서 수업 끝난 후 기숙사 가는 길이 즐겁다는 오윙한드, 꿈을 이루게 해준 아주 고마운 곳이라서 한국이 제2의 나라가 되어가는 기분이라. 그래서 늘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한국에서 처음 본 바다, 이번 여름엔 제주로!

여행을 자주하는 편이에요. 작년 여름에는 울릉도와 독도를 여행했는데, 그때 태어나서 바다를 처음 봤어요. 얼마나 가슴이 떨렸는지, 정말 좋았습니다. 몽골 내륙을 떠나와 바다를 처음 봤다는 오윙한드는 이번 여름엔 제주도를 찾은 예정이다. 자신의 두 번째 나라가 되어버린 한국명인데 구석구석 제대로 훑어보아야 않겠느냐며,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기숙사 가는 길로 발길을 옮긴다.



라오스에서 한국과의 무역
책임지고 싶어요!

펏다오후엡 위엡사완
(Phetdaoheuang Viengsavanh)
라오스
대학원 무역학과 재학 중

청주대에서 마지막 학기를 보내며

한국이 교육과 사회, 경제가 빠르게 발전하는 나라여서 좋았는데 이렇게 한국에서 공부할 수 있어서, 그리고 정부 초청 장학생으로 공부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오스국립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을 공부하고 2010년 8월 청주대 무역학과 대학원에 노크한 위엡사완은 현재 마지막 학기를 보내고 있다. 그래서 캠퍼스 구석구석이 아쉽고 더 정이 간단다. 한국어학당 1년 동안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정확한 발음으로 이야기를 술술 이어나간다.

라오스를 대표하는 국제통상 전문가로!

국제통상을 전공하고 있는데 재미있습니다. 국내무역뿐만 아니라 해외무역 시기도 이해할 수 있고, 무역산업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 교수님들, 정말 잘 가르쳐주시고 친절하십니다. 라오스로 돌아가면 통상부에서 일하며 한국과의 무역 협력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는 위엡사완은 청주대에서의 유학생활이 앞으로 큰 힘과 도움이 되리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

나무가 아름다운 청주대, 또 하나의 모교

청주대는 좋은 대학교입니다. 학교 건물도 예쁘고 학교 안에 나무가 많아서 정말 자연스럽습니다. 여름엔 시원하고 가을엔 단풍이 아름답습니다. 공기가 좋고 조용해서 공부하기에 좋습니다. 교수님, 학생들과 함께 쌓아온 정이 많아 어떻게 청주대를 나서야 할지 모르겠다는 위엡사완은 청주대가 자랑스러운 또 하나의 모교가 되었다고 한다. 라오스 사람들에게 청주대에서의 추억을 말해주고 싶다며 남아 있는 시간을 잘 보내겠노라 다짐해본다.

Global Challenge

세계 2대 강국,

미국과 중국의 서로 다른 문화를 경험하다

매년 국제교류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해외 자매대학과의 다양한 국제교류 프로그램은 그동안 많은 학생들에게 세계의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창구가 되어왔다. 2012년 2학기에 미국과 중국의 자매대학에서 수학하며 세계경제를 이끄는 강대국의 문화를 몸소 경험하고 돌아온 오진우, 장동석 학생. 두 사람의 눈에 비친 두 나라의 진짜 '힘'은 무엇이었을까.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전 분야에 걸쳐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는 두 나라의 문화적 차이만큼 달랐던 미국과 중국에서의 유학생생활 이야기를 들어본다.

오진우

반도체공학부 06
미국 캘리포니아 CSUS
(California State University
Sacramento)에서 수학



2012년 2학기에 해외 자매대학 장학영어유학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 캘리포니아의 주도인 Sacramento에 위치한 CSUS(California State University Sacramento)에서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어 떠났던 미국. Sacramento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약 1시간 가량 걸리는 거리에 있고, 우리에게엔 영화배우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주지사였던 도시로 유명하다. 처음 도착했던 날, 생각보다 더운 날씨 탓에 한동안 고생을 하기도 했지만 홈스테이를 통해 만난 세 명의 미국인 가족은 내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해줬다. 부부인 Lacy와 Jose, 그리고 그들의 할머니였던 John과 함께 여행을 떠나기도 했고, Thanksgiving day나 할로윈과 같은 전통적인 가족행사에도 함께 어울려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미국인들 대부분은 자연 속에서 체험하는 Outdoor Activity를 좋아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한 달에 한번 정도는 도시를 벗어나 홈스테이 가족들과 함께 산으로 하이킹을 떠나 캠핑을 즐기면서 주말을 보냈고, 여름에는 강에서 카약킹(1인용 노를 저어서 움직이는 보트)을 즐기고, 겨울에는 캘리포니아의 대표 관광지인 레이크 타호에서 스노보딩을 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컴퓨터나 게임기에 빠져있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어 보였다. 온 가족이 모두 모여 배드민턴이나 원반 던지기 등의 스포츠를 함께 즐기며 대화하는 장면들을 쉽게 접할 수 있었다.

학교생활 역시 매우 만족스러웠다. 미국은 물론 멕시코, 타이완, 중국, 일본, 기니,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까지 정말 다양한 나라의 친구들이 함께 모여 동일한 언어를 배우고, 대화할 수 있다는 사실이 내게는 무척이나 신기하고 재미있는 경험이었다. 이제 한류는 미국까지 진출한 것인지 한국인인 나보다 한국 드라마나 연예인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미국 친구들을 만나는 일도 있었다. 무엇보다 미국에서 가장 매력적이었던 건 도시에서 한 시간 가량만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면 광활한 대자연의 느낌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이었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자연을 찾아가 마음껏 즐기고, 그곳에서 처음 만난 사람들과 편안하게 대화하고 함께 여가를 보내는 문화는 지금껏 내가 접해보지 못한 것이었다. 이렇게 미국에서의 유학생생활은 내게 많은 경험을 선사했고, 그로 인해 나는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영어를 좋아하지도 않았고, 너무 못했던 내가 지금은 해외영업부나 해외기업 반도체장비회사 취업을 준비 중이다. 스티브 잡스가 말했다. "The journey is the reward." 나는 사람의 모든 과정이 여행이라고 생각한다. 목적지에 도달하는 결과만을 바라보고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의 과정들이 모여 나 자신을 만드는 것이라 믿고 계속해서 나만의 여정을 이어갈 것이다.



장동석

중국통상학과 05
중국 광둥성
광둥해양대학교에서 수학

복학하여 3학년에 재학 중이던 지난해, 우연히 알게 된 국제교류처의 중국자매대학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중국 광둥성에 위치한 광둥해양대학교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광둥성의 잔장시라는 곳은 최근 중국에서 신흥무역항으로 주목 받고 있는 곳이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외국과의 개방무역에 반대하던 보수적인 지역이었으나 무역개방 이후 중국 남서부의 주요 무역항으로 급부상하게 되면서 점차 중국 내 무역인과 사업가들이 이곳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다고 한다. 때문에 아직까지도 중국인을 제외한 다른 나라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매우 어려울 정도였다. 광둥해양대학교에서의 유학을 위해 일정 기간 잔장시에 머물겠다는 신고를 하고 체류허가를 받기 위해 찾았던 공안본부에서 우리가 이 지역의 유일한 유학생임을 전해 들을 수 있었다. 중국은 여전히 공산주의 국가체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공안을 비롯한 기타 공무원들의 태도에서 그들의 절대적인 영향력과 경직된 문화가 여실히 드러났다. 처음 광둥해양대학교에서 유학생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곧바로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학교정보를 찾아보던 나는 생각보다 자료가 많지 않아 조금 실망을 했다. 하지만 실제로 가서 내가 직접 경험해본 광둥해양대학교는 놀라움의 연속이었다. 일단 캠퍼스의 규모가 굉장했을 뿐만 아니라 교내 경관이 너무 훌륭해서 매일매일 천천히 걸으며 캠퍼스를 구경하는 일이 백할 정도였다. 전교생이 6만 명이 넘는다는 사실을 듣고 또 한번 놀랐는데, 역시 중국이구나 싶었다. 첫 수업이 있던 날부터 줄곧 나를 따라다니던 건 사람들의 시선이었다.



학교에서도, 시내에서도 현지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는 묘한 상황이 계속해서 연출되었고, 한국인 유학생과 함께 사진을 찍으려는 사람들과 마주해야 했다. 한국 가수나 배우들, 한국의 방송 프로그램 등을 물어보는 그들을 보면서 한류의 위대함을 느낄 수 있었다. 광둥해양대학교는 예술계열이 유명한 편인데, 해마다 11월~12월 사이에 열리는 예술계열 졸업공연에 초대받아 다양한 공연을 관람했던 일은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 같다. 또 하나, 광둥해양대학교에서 공부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 중 하나는 대학교 1학년에 입학하면 남녀 모두 군복을 입고 2주 간의 군사훈련을 학교에서 받는다는 사실이었다. 기본적인 체력이나 정신교육 등을 실시하는 것을 두 눈으로 지켜보며 우리와 공산주의 국가 간의 문화적 차이를 다시 한번 실감했다. 중국에서 생활한 5개월의 유학기간 동안 같은 학교에 다니던 많은 중국인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고,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술자리도 가지며 우리나라의 문화를 알려주기 위해 노력했다. 중국인 친구들에게 느꼈던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정이 많고, 예의 바르며, 순수하다는 것이다. 유학생 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던 날에는 많은 중국인 친구들이 슬퍼하며 배웅을 해주는 바람에 마음 한 편이 잔해오기까지 했다. 5개월의 유학기간 동안 개인적으로는 중국어 실력이 이전보다 훨씬 향상되었다는 점과 새로운 문화를 경험함으로써 건문을 넓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 뿌듯하다. 중국에서의 생활을 계기로, 중국과 중국어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진 것 같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여 중국과의 무역에 보탬이 되는 무역인이나 사업가가 되고 싶다.



Local Together

4년제 대학 최초로 한·중합작 학생영화 제작한 영화학과

청주대 영화학과가 4년제 대학으로서 처음으로 한·중합작 학생영화를 제작하고 있어 화제를 모으고 있다. 2012년에 이미 영화학과 교수진과 학생들이 북경과 요성을 방문해 2편의 단편영화를 공동으로 제작했고, 이번 여름에는 반대로 중국 학생들이 청주대를 찾을 예정이다. 이번 합작영화를 시작으로, 아시아를 뛰어넘어 유럽까지 점차 문화교류의 폭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청주대 영화학과. 세계와 진정으로 호흡하는 영화 교육의 현장으로 거듭나고 있다.

한국 영화계의 든든한 허리, 청주대 영화학과

1981년 개설된 청주대 영화학과는 오랜 전통을 바탕으로 한국 영화산업계에 실력 있는 전문가들을 배출해왔다. 영화인들의 꿈의 무대인 '충무로' 진출 1위, 영화 현장에서 뛰는 스태프 1위, 4년제 대학 영화학과 교수로 활약하는 동문 1위 등의 성과를 기록하고 있는 청주대 영화학과는 5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여느 대학 영화학과 못지않게 눈부신 활약을 선보이고 있다. 교수진과 학생들의 열정적인 노력 위에 탄탄한 현장실기 교육이 더해져 왔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변화를 찾던 청주대 영화학과가 최근에는 중국 대학과 공동으로 영화를 제작하는 일에 도전했다. 영화감독이기도 한 어일선 교수(영화학과 학과장)가 중국의 한 대학에서 특강을 가진 후 본격적으로 학생교류를 모색했고, 2011년 한·중교류영화제 이후 2012년에 첫 번째 한·중합작 학생영화를 제작하기에 이르렀다. 중국이 한국 영화계를 주목하고 끊임없이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요즘, 한국은 시장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중국으로 진출할 필요성이 커졌다. 또 중국은 영화제작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한국의 영화 인력과 시스템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청주대 영화학과와 또 다른 도전이 시작된 것이다.

아시아를 넘어 세계와의 호흡을 꿈꾸다

한·중합작 영화 제작의 물꼬를 튼 한·중교류영화제

한·중합작 영화 제작에 대한 최초의 논의는 지난 2011년 10월 청주대 영화학과 30주년을 기념한 한·중교류영화제로 거슬러 올라간다. 청주대와 북경수도사범대학 학생들이 제작한 9편의 단편영화를 청주 시내 극장에서 상영하던 날, 청주대 영화학과와 중국 수도사범대학 과덕학원과의 학과 간 교류협약식이 있었다. 교수와 학생의 교류, 연구 협력, 국제영화제를 비롯한 각종 영화제에 공동 제작한 작품 출품, 장단기 연수 활동 등의 협약 내용이 구체적으로 정해졌고, 청주대 영화학과는 곧바로 한·중합작 영화 제작 준비에 들어갔다. 그리고 현재 청주대 영화학과에는 한류바람 속에 한국 영화에 높은 기대를 하고 지식과 기술을 배우고자 유학 온 중국인 유학생이 29명에 이른다.



영화학과 편집실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어일선 교수



2012년 첫 번째 한·중합작 학생영화 제작기

몇 년 전부터 한국영화아카데미나 한국예술종합학교 등이 중국의 전매대, 중앙희극학원 등과 함께 영화를 제작하고 있지만, 영화 특성화 학교가 아닌 일반대학에서 외국과 공동으로 영화를 제작한 곳은 청주대 영화학과가 유일하다. 또한 한국과 중국의 영화교육기관이 함께 실시한 첫 합작 영화제작이라는 데에도 큰 의미가 있다. 첫 합작영화는 단편영화 2편으로, 지난해 청주대 학생들이 중국 북경수도사범대와 요성대를 방문해 함께 촬영을 마쳤다.

Step ★ 시나리오 선정, 촬영 기획과 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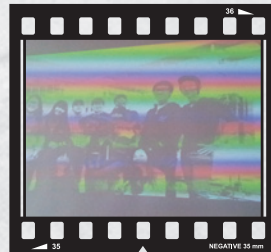
단편영화의 시나리오와 스태프는 공모를 거쳐 선정했다. 시나리오와 기획서를 심사하여 2개 팀을 1차 선발하고, 지도교수의 지도 하에 3개월 간 해당 시나리오들을 발전시킨 후 최종적으로 제작에 들어갈 시나리오를 선택했다. 이렇게 결정된 시나리오는 한국과 중국 학생의 사랑과 우정을 담은 <단팔뿔>과 <송별회>이다. 시나리오 선정 후 중국 유학생들이 번역한 시나리오를 각 북경수도사범대(단팔뿔)와 요성대(송별회)로 보내 의견을 주고받으며 최종 시나리오를 완성했다. 한편 중국에서는 최종 시나리오 검토 후 촬영 장비와 이동 버스 준비, 촬영 스태프 준비, 장소 섭외 등 영화 촬영과 관련한 모든 준비를 끝마쳤다.

Step ★ 중국 현지 촬영

감독, 프로듀서, 배우, 촬영, 기타 스태프 5명이 1개 조로 꾸려진 2개 팀이 2012년 7월 4일에는 북경수도사범대에, 15일에는 요성대에 각각 도착했다. 도착 후 10여 일 동안 중국 학생들과 함께 장소 헌팅 및 최종점검, 촬영, 보충점검의 순으로 공동제작의 시간을 보냈다. 현지에서 배우 오디션을 실시하는 등 실제 영화제작과 거의 비슷한 방식과 순서로 촬영이 진행되었다. 중국 대학 측에서는 프로듀서, 촬영, 조영부, 연출부, 주요 연기자 등 각 대학 2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했다.

Step ★ 편집과 후반작업, 영화제 초청

편집과 후반작업은 청주대에서 진행했다. 2개월 간의 작업을 거쳐 중국 양 대학에 마스터 필름을 보내 의견을 주고받아 최종 영화제작이 마무리되었다. 영화에는 한국어, 중국어, 영어 자막이 함께 등장한다. 2012년 9월에 북경수도사범대와 요성대 교수, 학생들이 청주대를 방문하여 상영회를 가졌고, 2012년 11월에는 북경국제대학생영화제에 초청되는 영광을 안기도 했다.



글로벌한 미래 영화인들의 베이스캠프

이렇게 시작된 한·중합작 영화 제작은 2013년에도 계속 이어진다. 이번 여름에는 중국 학생들이 청주대를 찾는다. 영화학과 내에서는 지난해 영화 제작에 참여한 학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 학생들 간의 경쟁이 높아질 대로 높아진 상태다. 학생들이 상대국의 영화 교육과 제작 환경을 경험한 것이 큰 기회였다. 특히 양교 학생들이 자생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된 것은 물론, 언어와 문화의 차이를 넘어서 아시아 영화시장에서 국제 감각이 뛰어난 인력으로 성장하는 초석을 다지게 되었다. 현재 중국의 청도농업대학, 일본 오사카대, 미국 하와이대, 프랑스 영화학교 등에서도 합작영화 제작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우선 한·중·일 합작 영화를 성사시킨 후 점차 유럽과 미주로도 교류 무대를 넓혀가고 싶은 것이 청주대 영화학과와 생각이 다. 이제 곧 아시아를 뛰어넘어 세계 영화계를 움직일 미래 영화인들의 베이스캠프로 활약할 청주대 영화학과 미래가 기대된다. ㊦

영화와 드라마 촬영의 새로운 메카, 청주

TIP

2013년 7월, 북경수도사범대와 요성대의 교수와 학생들이 한·중합작 영화 제작을 위해 청주대를 방문한다. 영화 촬영을 위해 청주대 영화학과가 미리 준비할 것 가운데 하나가 정소 섭외다. 촬영지는 청주지역 전 범위가 대상인데, 청주대 학생들은 장소 섭외에서만큰 큰 어려움을 느끼지 못한다. 청주대 캠퍼스 자체도 자연과 건물이 조화를 이뤄 아름답지만, 최근 청주시 곳곳이 영화와 드라마 촬영지로 인기를 얻으면서 숨어 있던 공간들이 새롭게 조명 받고 있기 때문이다. 오래된 건물과 풍경이 도시와 조화를 이루고 있는 매력 덕분에 청주시를 찾는 이들도 부쩍 늘고 있다.



청주시 곳곳의 풍경을 담은

영화와 드라마

영화 <친절한 금자씨> | 영화의 주요 장면을 청주에서 촬영했다. 주인공 금자가 구속되는 장면은 충북대 앞에서, 교도소 내 도서관 장면은 충북대 도서관에서, 교도소 내부는 철거 직전의 청주 KT&G 건물에서 촬영이 이뤄지는 등 청주시 곳곳을 담고 있다. 이밖에 교도소 내부, 무허가 미용실, 예배당, 제빵 교육실, 취조실 등 많은 장면들 역시 청주가 배경이다.

영화 <짝패> | 청주에서 가장 큰 변화가인 성안길이 이 영화의 주요 촬영지였다. 류승완, 정두홍 두 배우가 야구선수, 고교교장, 힙합청년 등 200대 2의 싸움을 하는 신에서 등장했다.



드라마 <카인과 아벨> | 수암골은 물론 청주의 상징인 가로수길, 벚꽃 피는 상당산성, 청주고인쇄박물관 등이 드라마에 등장했다. 극 중 주인공이 벽화 골목에서 생일을 축하하는 이벤트를 하던 수암골은 시청자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드라마 <제빵왕 김탁구> | 드라마의 주요 세트인 팥봉제빵집도 수암골에 자리하고 있다. 이 드라마는 거의 모든 촬영을 청주에서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드라마 <영광의 재인> | 드라마 세트장이 있는 수암골을 비롯해 청주의료원, 목련공원, 청주야구장 등 청주 시내 주요 명소에서 촬영되었다.

드라마 <부탁해요 캠프> | 파일럿, 승무원, 관제사, 정비사 등의 이야기를 담았던 이 드라마는 강의실과 도서관 등 청주대 캠퍼스 곳곳에서 촬영되었다.



기타 청주대 캠퍼스에서

촬영한 작품들

드라마 <키다리 아저씨>, 영화 <엽기적인 그녀>, 영화 <아이들...>, 영화 <은교>, 영화 <건축학개론> 등 다수

달동네 골목풍경을 그대로 간직한

벽화마을 '수암골'

한국전쟁 직후에 피난민들이 모여 형성된 수암골은 골목마다 펼쳐지는 삶의 풍경이 인상적인 마을이다. 2007년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통해 마을 담장에 벽화가 그려지면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벽화들은 유명 아티스트들이 아닌 시민과 학생, 유치원생들이 참여해 그려 넣은 것으로, 청주시의 자랑이 됐다. 그 후 드라마 '카인과 아벨'(2009) '제빵왕 김탁구'(2010) '영광의 재인'(2011) 등이 촬영되면서 각 드라마의 흔적이 곳곳이 스며들어 있다. '제빵왕 김탁구'가 시청률 50%를 기록했고 일본에서도 방영되며 큰 인기를 얻었다. 또 '카인과 아벨' 역시 소지섭의 아시아권 인기로 힘입어 수암골은 이제 관광명소가 되고 있다. 이런 수암골이 최근에는 문화와 예술의 거리로 다시 발돋움하고 있다. 옛 배지공장을 리모델링해 수암골의 특색이 담긴 액세서리와 도자기를 전시·판매하는 등 '수암골 솜씨'를 조성해 문화의 거리로 만들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WOW People

청인보(淸人譜) 청대인의 삶과 철학을 기록하다

걸어온 삶으로, 살아온 궤적으로,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말하는 청대인.
그들이 건넨 이야기 속에서
삶의 경이로움을, 세상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발견합니다.



24 청인보 제1장

세계 정상에서 부르는
아리아,
연광철 동문



28 청인보 제2장

가야금 선율로
세상과 소통하는
송정연 동문



30 청인보 제3장

패스의
아름다움을 아는 축구,
이영진 감독



34 청인보 제5장

세계적인
제품디자이너를 향한 꿈,
원은영 학생



32 청인보 제4장

사회복지학과의
웜 하트(Warm Heart),
남기민 교수

세계 정상에서 부르는 아리아

성악가(베이스), 서울대 성악과 교수
연광철 동문 음악교육과 84학번

오직 한길을 걷는 이들이 내어 놓은 길은 지나온
굽이마다의 사연과 열정으로 눈부시다. 같은
길을 찾던 누군가에게는 끄덕이며 걷는 길이 되고,
뒤돌아보지 않고 걸었던 자신에게는 굽이굽이
훈장이 되어 세상의 시간에 아로새겨진다.
음악교육과를 졸업한 연광철 동문은 아름다운
목소리로 세상의 시간에 근사한 풍경을
더해주는 사람이다.



“내 업(業)은 노래하는 것이고,
노래하는 삶이 제겐
가장 소중합니다.”



세계가 인정한 목소리, 한국을 대표하다

베이스 연광철. 그의 이름 앞에는 이미 '세계적'이라는 수식어를 뛰어넘어 '거장'이라는 말이 함께한다. 풍부한 울림과 깊은 음색으로 지난 20여 년간 세계 무대에서 아낌 없는 찬사를 받아온 그는 세계 무대에서 한국 클래식 음악의 존재감을 알리고 있는 대표적인 성악가다. 청주대 졸업 후 플라시도 도밍고 콩쿠르에서 우승을 하고, 10년 동안 독일 베를린 국립오페라단 전속 가수로 활약하고, 또 오로지 바그너 오페라만 무대에 올리는 '바이로이트 페스티벌'의 대표 가수가 된 그는 거구의 서양인 베이스들이 주류인 세계 오페라 무대에서 단연 돋보이는 존재다. 체구가 작은 동양인이 베이스로 서양 무대에서 성공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졌지만, 연광철 동문은 이런 고정관념을 보기 좋게 깨뜨렸다. 뉴욕타임스는 그를 가리켜 '덩치는 작지만 거인처럼 노래하는 존재감'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고, 유럽의 청중과 비평가들은 본고장 사람들도 놀랄 정도로 정확한 그의 발음(diction)과 곡 해석력에 감탄을 쏟아내고 있다. 유럽, 북미의 주요 오페라하우스를 넘나들며 다니엘 바렌보임, 주빈 메타, 제임스 레바인, 크리스티안 틸레만 등의 거장 지휘자들과 함께 최정상급의 무대에 서고 있는 연광철 동문은 이미 2016년까지의 공연 일정이 모두 잡혀있을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바쁜 성악가의 삶을 살고 있다.

바그너가 찾던 그 목소리, 세계를 감동시키다

세계적인 베이스의 유년시절은 어떠했을까. "어릴 땐 전기도 안 들어오는 시골에 살았어요. 학교 끝나고 집에 오려면 고개를 몇 개나 넘어야 했는데, 조금만 늦어도 어두웠죠. 심심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해서 노래를 흥얼거리고 다녔어요. 노래에 심취하면 무서운 걸 조금이나마 잊을 수 있었으니까." 그저 노래 부르는 것이 좋았고, 변성기를 지나면서 자신의 낮은 목소리가 남다르다는 걸 알았지만, 충주공고를 다닐 때까지만 해도 평범한 건축설계사를 꿈꾸던 청년이었다. 그가 정식으로 성악 공부를 시작한 건 고3 때 건축설계기사 자격증 시험에 떨어지면서부터였다. 무엇을 하고 살까 생각하다 음악을 떠올렸고, 독학으로 노래공부를 해 청주대 음악교육과에 입학했다.

아버지가 소를 팔아 마련해주신 등록금으로 대학생이 된 그에게 청주대는 첫 번째 기회였다. 정말 음악을 하고 싶었고, 마음껏 노래 부를 수 있는 피아노 있는 공간이 감사했다. 서울에서 열리는 큰 콩쿠르에 나가 여러 번 입상하면서 주변에서 유학을 권유했지만, 유학은 그리 쉽지만은 않은 일이었다. 그 즈음 불가리아 가수들의 목소리에 매료되었던 그는 적은 돈으로도 유학할 수 있는 불가리아를 선택했고, 소피아음대생이 되었다. 그 후 독일 베를린 국립음악대 재학 시절 출전한 플라시도 도밍고 콩쿠르는 그에게 두 번째 기회를 가져다 주었다. 이 대회에서 우승을 거머쥔 연광철 동문은 도밍고로부터 '세계 오페라계의 떠오르는 보석'이라는 찬사를 들었다. 1993년, 그의 나이 스물아홉이었다. 이듬해부터 10년 동안 베를린 국립오페라단의 주역 가수가 되어 다양한 무대를 경험했고, 한 해 두 해 자신의 실력을 키워나갔다.



"애초에 음악을 하면서 굉장한 포부는 없었어요. 노래하는 것 자체를 기뻐했고, 그래서 잘하려고 노력했을 뿐입니다. 유학을 간 것도 우리나라에서 그들의 음악을 배우는데, 현지에서는 정말 어떻게 배우는지 궁금했거든요. 그곳에서도 음악을 음악으로 대하고 더 알려고 하다 보니 많은 발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노래를 열심히 불렀을 뿐이라는 그의 실력은 곧 독일에서 폭발하기에 이른다. 지휘자 바렌보임의 권유로 1996년 바이로이트 페스티벌에 데뷔한 그는 정확한 발성, 섬세한 표현력, 카리스마 넘치는 연기로 세계 성악계를 사로잡았다. 그에게 찾아온 세 번째 큰 기회였다. 세계의 바그너 오페라 팬들에게는 성소(聖所)라 불리는 이 페스티벌에서 그는 지난 16년 동안 작은 역할로 시작해 점차 비중 있는 역할을 맡아 왔다. 2002년 <탄호이저>의 헤르만 영주 역을 맡은 후 '바그너가 원했던 대로 해석해 배역을 제대로 소화해 낸 가수'라는 평을 받아 다시 한번 그 실력을 인정받았고, 2008년에는 세계 정상급의 베이스만이 맡을 수 있다고 하는 <파르지팔>의 구르네만츠 역을 맡아 뜨거운 커튼 콜을 받기도 했다. '목소리에 강력한 파워를 실은 채 어떻게 그렇게 부드럽게 노래할 수 있는지 정말 놀랍다', '독일인이 아닌 그가 어떻게 독일어 발음을 그렇게 명확하게 할 수 있는지, 대사가 너무 뚜렷이 전달된다'는 모두의 갈채 속에는 연광철 동문만의 남다른 노력이 진하게 배어있다. 캐스팅 제의를 받으면 악보는 물론 오페라의 이야기 배경과 인물 분석 등에 많은 시간을 들여 몰입하기에 무대마다 완벽하게 곡을 해석한다는 호평을 받을 수밖에 없다. 신장 2미터가 넘는 상대 배역과의 호흡에서도 절대 뒤지지 않고 오히려 빛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부단한 노력 때문이다.

소리로 극복한 모든 경험, 강단에 쏟아내다

경험만큼 큰 가르침은 없는 법. 지난 2010년부터 연광철 동문은 서울대 성악과 교수로 학생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오롯이 전하고 있다. 음악 선생님도 없이 홀로 연습하며 성악가의 길로 접어들었던 그가, 그때 꿈꾸었던 모습 그대로 학생들 앞에 서 있는 이 시간 또한 감사하다. "서양 음악이 우리 문화가 아니기에 가르치는데 어려움이 많죠. 특히나 성악은 언어가 있어서, 언어에서 오는 어려움을 잘 가르치려고 합니다. 단순히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 문화의 한 부분을 표현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곡이 나오기까지의 배경이라든가 작곡가들의 고민을 모르면 곱할기 로만 부를 수밖에 없지요." 학생들에게 전하는 한 마디 한 마디에는 20년 넘게 몸으로 익히고 깨달은 세계 정상 베이스의 삶이 녹아있다. '내 업은 노래 부르는 것'이라며 노래하는 삶이 가장 중요하다는 연광철 동문. 요즘 같이 첨단을 달리는 시대에 청주대나 서울대는 큰 의미도, 차이도 없으며 후배들이 더 넓게 생각하고 멀리 보기를 당부한다. 오는 9월에는 2010년에 이어 고향 청주를 다시 찾을 예정이다. 올 가을,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를 기념해 열리는 독창회에서 그를 다시 한번 만나볼 수 있으니, '이처럼 아름다울 수 있는 베이스'의 목소리를 가슴으로 들어볼 날도 머지 않았다. ☺

인생을 이야기하는 가야금 선율로 소통하다

가야금 연주자, '갤러리뮤직아트홀' 대표
송정연 동문 한국음악과 95학번



대성로 수동에 위치한 연습실에 들어서니, 수많은 가야금이 벽을 감싸 안고 있었다. 풍류가 절로 느껴지는 '갤러리뮤직아트홀'은 송정연 동문이 자신의 이름을 처음 드러내고 세상과 소통하는 공간이다. 지난 4월 10일 첫 독주회를 열고 새 기운을 얻었다는 그녀에게 가야금 선율이 지닌 무한한 소통에너지를 세상에 널리 알리는 것은 큰 기쁨이자 소명이다.

“처음엔 가야금 소리가 여성스럽고 예쁘기만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 안에 인생이 담겨있다는 걸 새삼 깨닫게 돼요. 가야금을 타면 탈수록 인생을 표현하는 그 소리에 빠져듭니다.”

가야금을 어루만진 지 20여 년. 이제야 가야금이 내는 소리의 진면목을 알아간다는 송정연 동문은 청주에서 터를 잡고 우리 소리를 가까이 전하는 것으로 또 하나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 갤러리뮤직아트홀 人. 송정연 동문이 판소리 하는 지인과 손잡고 문을 연 이곳은 일종의 작은 '풍류방'이다. 국악공연도 하고,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지도하기도 한다. 오픈 행사로 미술작품을 전시하면서 국악공연을 한 것이 뜨거운 반응을 얻었고, 이에 용기를 내어 이곳을 야심 차게 한바탕 꾸러갈 생각이다. 지난 몇 년간 열정을 쏟았던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수업에서 인연을 맺은 학생들이 이제 그녀의 제자가 되어 이곳을 찾는다.

“오랫동안 아이들을 만나 가르치다 보니 매 순간 잘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식으로든 아이들에게 영향을 주니까요. 요즘 아이들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잖아요. 다들 여기에서 힐링 한다고들 해요. 저야 고맙지요. 잘 믿고 따라와주니까요.”

지난 4월 청주예술의전당에서 열렸던 그녀의 첫 독주회 <동심, 가야금으로 보다>도 어린 제자들에게 본보기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준비했다. 관객들은 나비야, 여우야 여우야, 풍당풍당, 꼭두각시 등의 동요를 12현, 25현 가야금 선율로 풀어낸 이색적인 연주를 가까이 즐겼다. 또 어릴 적 꿈이기도 했던 노래를 부르기 위해 두 달 동안 연습한 기타실력도 선보였다.

“어렸을 때 가수가 될 줄 알았어요. MBC 어린이합창단 같은 데에도 혼자 시험 보러 갈 정도로 노래를 좋아했으니까요. 엄청 보수적인 집안 분위기 때문에 그런 꿈은 꺼낼 수도 없었죠. 그러다 우연히 국악원 간판을 보게 된 거예요. 고1 때.”

노래를 부르기 위해 음악대학에 들어가고 싶었고, 그 방법으로 선택한 것이 가야금이었다. 취미로 배우겠노라 시작했던 가야금을 놓지 않자, 집에서는 반대가 대단했다. 평범하게 공부하고 대학 나와 사회인으로 살아가길 바라셨던 부모님을 단식투쟁까지 하며 설득했고, 그렇게 그녀는 가야금을 품을 수 있었다.

“제가 독주회를 늦게 한 편이에요. 길을 이리저리 돌아와서 말이지요. 하지만 후회나 아쉬운 마음은 없습니다. 천천히 온 만큼 무언가 더 얻어주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국악교육의 대가 故 장사훈 교수의 가르침이 전해지는 청주대에서의 배움은 자부심 그 자체였고, 졸업 후 백인영 가야금 명인으로부터 민속악을 전수받으면서 전통음악 연주자로서의 사명감을 체워나갔다. 또 아이들과 가야금 열두 줄을 놓고 우리 소리의 아름다움을 나누면서 가야금으로 세상과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지 배웠던 날들이었다. 바빠 이 틈을 알리기 위해 뛰어오지 않았던 대신에 오로지 시간만이 선사해줄 수 있는 귀한 것들을 얻은 것이다.

“청주에서 가야금 하면 송정연, 이런 소리 들을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려고 합니다. 독주회도 더 자주 갖고요. 이 연습실은 정기적으로 공연이 올려지는 지역문화공간으로 꼭 만들 겁니다. 지켜봐 주세요.”

그간 공부해 온 것을 제대로 풀어내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그녀의 다짐 속에 가야금 선율을 상상해 본다. 손가락 끝 굳은살로 또다시 놀러갈 가야금 열두 줄. 진양조, 중모리, 자진모리, 휘모리 속에 그녀가 들려주는 인생이야기가 공명해진다. ㉠

한 순간도 식은 적 없는 23년 열정의 축구인생

청주대 축구팀 신임감독,
전 대구FC 감독
이영진 감독

지난 2월 전남 해남에서 열린 전국춘계대학축구연맹전. 청주대 축구부가 32강까지 올랐다. 비록 관동대에 1대 2로 패배해 16강 진출은 좌절됐지만, 그 어느 경기 때보다 선수들의 사기는 상승세였다. 2010년과 2011년 추계연맹전을 2연패한 동국대를 3대 0으로, 또 군장대를 1대 0으로 꺾으면서 다시 회복한 자신감은 춘계연맹전의 큰 수확이라 하겠다. 이영진 신임감독과 호흡을 맞춘 지 채 두 달도 안 되었지만, 감독을 믿고 따르는 선수들의 순순함과 열정을 확인했던 대회였다. 창단한 지 40년 정도 되는 청주대 축구부의 실력은 아직 최정상급은 아니다. 그도 그럴 것이 청주대 축구부는 모든 선수가 학과 수업을 빠지지 않는, 공부하는 축구부다. 축구연습도 선수들 수업이 모두 끝나는 시간에 맞춰 시작된다고 하니, 연습량은 다른 대학에 비해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영진 감독은 지난 1월, 청주대를 선택했다. 김윤배 총장의 남다른 축구부 사랑과 그의 철학에 공감했고, 무엇보다 축구부의 실력을 끌어올릴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이다.

“공부하는 운동선수를 키우는 것이 청주대의 생각이더군요. 오랜 전통 같았습니다. 그리고 선수의 인성을 무척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에도 크게 공감했습니다.”

평소 축구를 잘하는 ‘좋은 선수’를 발굴하는 것만큼 재능과 인성이 조화를 이룬 ‘훌륭한 선수’를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던 그에게 고민이 길지는 않았다. 13년 동안 프로구단의 코칭 스태프와 감독으로 활동하면서 한 번쯤은 대학에서 선수들을 이끌고 싶다는 생각도 했던 터였다. 아마추어팀 지도는 이번이 처음이지만, 그래서 더 의욕 충만한 도전이 되었다.

청주대 축구부에 변화가 생겼다. FC서울, 대구FC에서 프로선수들을 이끌던 이영진 감독이 사령탑을 맡아 34명의 선수들과 새롭게 호흡을 맞춰가고 있는 것. 아마추어 구단 지도는 이번이 처음이지만, 그는 지금 23년 축구인생의 모든 것을 선수들에게 쏟아 붓고 있다.

“선수는 참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재미있고 흥미진진하지요. 마치 경기처럼요. 지금까지진 선수들이 잘 따라와 주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패스의 아름다움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골을 넣는 과정의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에 골이 빛날 수 있는 거니까요.”

선수들이 골 넣는 과정을 몸으로 깨닫는다면 그것만으로도 더 바랄 것이 없다는 이영진 감독도 ‘패스의 매력에 빠져 현역시절을 보냈다. 초등학교 때부터 축구공을 친구 삼아 놀던 그는 LG구단의 전신인 황소축구단에서 선수생활을 시작했다. 안양LG가 서울FC로 바뀌는 동안에도 10년 동안 그라운드를 누렸고, 90년과 94년에 열렸던 월드컵과 아시안게임 네 경기를 모두 국가대표로 뛰었다. 프로대회 초대 올스타 MVP도 해봤으니 선수로서는 해볼 만큼 해본, 후회 없는 세월이었다. 대학 축구를 이끌면서 새롭게 경험하는 대학리그는 그에게는 귀한 현장이다. 1년 내내 주말마다 열리는 리그전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경기를 치르고 돌아오는 길이 고되기도 하지만, 젊은 날 자신이 선택한 일을 충분히 즐길 줄 아는 선수들이라 믿기에 큰 걱정은 없다.

“단순히 한 경기에서 이기는 것보다 좋은 축구, 올바른 축구 통해 경쟁력 있는 선수로 성장하도록 동기유발을 하는 것이 제 일이지요. 좋은 팀으로 성장시킬 자신감은 충분합니다. 이걸 제 자신에게 거는 기대감이기도 합니다.”

숨겨진 가능성을 가진 선수를 발굴하겠다는 이영진 감독은 FC서울 2군을 이끌던 시절 기성용 선수를 키워냈던 것처럼 청주대에서도 훌륭한 선수를 발견하고 큰 선수로 키우고 싶단다. 청주대 출신 국가대표를 만들어보는 것도 그의 바람 가운데 하나다. 올 하반기에는 캠퍼스 안에 인조잔디구장도 완공된다고 하니, 좋은 인프라와 이영진 감독의 지도력이 더해져 눈부신 성장을 거듭 청주대 축구부를 기대해본다. ㉠



웜 하트 Warm Heart 를 가르치고 스스로 행한 후회 없는 삶

사회복지학과,
청주복지재단 이사장
남기민 교수

정년퇴임을 앞둔 남기민 교수의 방은 무언가 짝 찬 느낌이었다. 그리고 평화로웠다. '웜 하트 Warm Heart' 교수로 불리며 청주의 사회복지를 위해 정성을 들여온 지난 34년. 그 시간은 사회복지학과 학생들과 청주시민에겐 축복의 한 장이었다. 청주복지재단 초대 이사장으로 활동하며 모두가 행복한 청주시를 꿈꾸는 그에게 또 하나의 시간이 열리고 있다.



“돌이켜보면 참으로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30대부터 60대 중반인 지금까지 청주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연구할 수 있었던 것도, 또 지역사회에 봉사하면서 보람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온 것도 모두 축복이지요.”

내년 2월 정년퇴임을 앞둔 남기민 교수는 그동안 많은 제자를 배출하고, 학문적 업적을 남기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면서 기쁨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청주대학교라는 좋은 직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지난날을 회상했다.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또 청주 지역사회에 남기민 교수가 남겨놓은 발자취는 넓고 깊다. 1980년부터 학생들에게 '사회복지'의 참 지식을 가르쳐왔고, 1991년부터는 봉사활동을 통해 실천하는 학자의 모습을 지켜왔다. 2006년, 세계 3대 인명기관인 영국의 국제인명센터(IBC)와 미국의 인명연구소(ABI) 사전에 사회복지 분야 전문가로 등재된 바 있으며, 미국문화총연합회가 수여하는 국제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그의 발걸음을 본보기 삼은 제자가 3,500여명. 현재 이들은 사회 구석구석에서 빛과 소금 같은 존재로 우리나라 사회복지 발전에 중요한 몫을 하고 있다.

“사회복지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사회구성원들의 집합적인 노력입니다. 선별적 복지든 보편적 복지든 가장 중요한 것은 인도주의, 평화주의죠. 제자들에게 늘 '웜 하트'를 강조해 왔습니다. 사람을 따뜻하게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회복지를 지속적으로 하기 어렵고 바로 지치게 돼요. 먼저 사람을 따뜻하게 사랑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고 말하곤 했지요.” 학생들은 오래 전부터 그를 '웜 하트 교수'라 불렀고, 이 말은 이제 남기민 교수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어버렸다. 정말 하고 싶은 학문을 해왔다는 남기민 교수의 전공 분야는 노인복지다. 2001년에는 제자 100여 명을 포함, 뜻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사단법인 충청노인복지개발회를 창립해 부설기관으로 4개의 노인복지시설과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예로부터 노인의 네 가지 고통이 있는데, 빈곤과 질병, 역할상실, 그리고 고독이에요.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긴 여가시간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지요. 노인복지가 노인문제의 실마리를 풀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퇴임 후에도 노인복지 연구와 활동에 집중할 생각입니다.”

2012년에는 청주복지재단 초대 이사장에 선임되어 지금까지 축적해온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풀어내게 되었다. 청주복지재단은 출범 후 10개월 동안 청주시민이 맞춤형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실질적인 프로그램들을 계획해왔고, 남기민 교수의 오랜 경험과 학문적 뒷받침은 적재적소에서 빛나고 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 개발이 그러하고, 지역에 산재해 있는 복지 자원을 종합적으로 연계하는 직지C&N(Call & Network)센터 운영도 그러하다. 또 2014년 청주시와 청원군이 하나가 되는 통합청주시가 출범하게 되는데, 이에 적합한 도농복합형 복지 모델을 개발하는 일에도 남기민 교수의 오랜 경험이 방향타가 되고 있다.

청주시를 가장 모범적인 복지도시로 만들고 싶다는 남기민 교수. 곳곳에 정이 묻어난 연구실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끝나지 않을 연구와 일이 있고, 끊이지 않을 소중한 인연이 있기에 아쉬움은 그리 크지 않다.

“제 노년기는 지역의 노인복지와 함께할 겁니다. 그리고 아직 노인복지학 교과서를 내지 못했어요. 박사학위를 받은 제자들과 함께 집필해서 퇴임 전에 제자들에게 선물하고 싶습니다. 학교에서의 마지막 작업인데, 저에겐 무척 의미 있는 일이 될 것 같네요.”

노인복지연구소에서 12년째 진행하는 세미나도 준비해야 한다며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씩 없이 꺼내놓는 남기민 교수. 노 교수의 발걸음은 여전히 빠르고 힘찼다. ☺

친절하고도 아름다운 제품디자인을 꿈꾸다

2012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Best of Best' 수상
원은영 학생 산업디자인학과 10학번

세계적인 권위의 독일 'Red Dot'에서 주관하는 디자인 공모전 수상자 명단에 5년 연속 이름을 올린 학교는 지역대학 중 청주대가 유일하다. 원은영 학생도 지난해 패키지 부문에서 최고의 상을 수상하며 그 실력을 인정받았고, 더 욕심껏 도전하며 꿈을 이루어가는 중이다. 많은 이에게 멘토가 되는 디자이너. 이것이 그녀의 꿈이자 든든한 에너지원이다.

스물 셋 디자이너는 당찼다. '원은영표 디자인'을 세상에 선보이고 싶다는 아무진 꿈처럼 현재를 살아가는 이유와 즐거움에도 자신만의 원칙이 있고 노하우가 있었다. 세계적인 디자인대회,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Red Dot Design Award)에서 받은 최고의 상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그토록 원하고 바라던 일을 이처럼 똑 소리 나게 준비해 가는 젊음인데, 그 어떤 열매와 영예가 이 젊음을 꺾어갈 수 있으랴.

“디자인은 사람을 위한 작업이잖아요. 그래서 늘 잘 들여다보는 훈련이 필요하죠. 수업 시간에도 형태를 아름답게만 하는 것보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배웠는데, 무의식 속에 존재하는 불편함을 찾아 디자인적으로 편의를 제공해주는 일을 하고 싶어요.”

브라운사의 수석 디자이너였던 디터 램스(Dieter Rams)처럼 굳어지지 않고 친절하면서도 아름다운 제품디자인을 하고 싶다는 원은영 학생은 그래서 관찰자가 되었다. 길에서 만나는 풍경도 새롭게 보려 하고, 습관적으로 달리 생각하는 연습도 잊지 않는다. 물건을 손으로 만지면서 촉을 곤두세우는 일도 그녀가 자주 하는 훈련이다. 훌륭한 디자이너들의 '디자인적 유전자'를 닮고 싶었던 그녀의 노력은 청주대 산업디자인학과와 문을 연 순간부터 시작되었다.

1학년 때, 한 선배의 소개로 무심코 지원서를 넣었던 KDM(Korea Design Membership)에 탈락 불어버린 원은영 학생은 본격적으로 디자인의 세계에 빠져들었다. 런던과 이탈리아, 파리에서의 디자인 워크숍과 싱가포르 HP 본사 디자인팀 직원들과의 워크숍은 두고두고 잊을 수 없는 일대 '사건'이었다.

“많이 보고 경험해야 하잖아요. 외국에서 정말 다양한 디자인을 접해보니까 눈이 확 뜨이는 것 같았어요. 자극도 많이 받았고,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감을 잡을 수 있었어요.”

막연한 꿈이 조금씩 손에 잡히는 듯했고, 그녀는 이내 세계 3대 디자인상에 도전하기로 마음먹었다. 2학년 때 '꽃다발이 바로 화분이 되는 아이디어'로 레드닷에 도전했지만 낙방했다. 하지만 쉽게 꺾일 패기가 아니었다. 레드닷은 2012년, 그녀의 두 번째 도전작인 'Repapers'를 패키지 부문 'Best of Best'로 인정해주었다. 'Repapers'는 복사용지 포장 박스를 서류 보관함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한 작품인데, 심사위원들로부터 아이디어가 뛰어나다는 평을 받았다.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패키지 부문 'Best of Best'를 수상한 원은영 학생의 출품작 'Repapers'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reddot design award)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디자인센터에서 주최하는 세계적인 권위의 디자인 어워드. iF 디자인 어워드, IDEA와 함께 세계 3대 디자인 공모전으로 꼽힌다.

“보통은 A4용지 포장지를 끝만 뜯어서 사용하는데, 보기도 안 좋고 먼지도 들어가 보관상 문제가 있죠. 그래서 포장지 자체를 재활용해보자고 의견을 모았어요. 재활용지로 박스를 만들어 단가를 낮추는 것도 중요했고, 종이를 다 쓰고 나면 서류 보관함으로 쓸 수 있게 디자인했어요.” KDM에서 만난 두 명의 선배와 함께 작업한 이 작품은 IDEA에서도 수상하는 성과를 얻었다.

이렇게 대학을 졸업하기 전 자신의 꿈을 분명히 정해 움직여온 젊음이지만, 여전히 막마르고 또 불안한 것이 어찌면 당연한 일. 아이디어의 원천이 마르지 않는 방법을 찾기 위해 그녀는 지난 1년 동안 휴학을 하고 디자이너의 '축'을 기르는 일에 몰두하고 있다. 모터쇼를 찾아가고, 인사동에서 수많은 그림을 보고, 마트에 가서 물건도 만져 보면서 말이다. “컴퓨터 앞에만 앉아있다고 되는 일이 아니니까요. 시간을 계획해서 실행하는 게 어렵긴 하지만, 어느새 반년 동안이나 실천해오고 있어요.” 이제 시간을 다스릴 줄도 알게 되었다 하니, 원은영 학생에겐 이대로 공부하고 도전하는 일반 남은 셈이다. 그녀의 친절하고도 아름다운 제품디자인의 탄생을 기대해본다. ㉠



봄날의 나무처럼,
배움의 뿌리를 내려라
세상을 향한 가치를
뻗어라

봄의 시작과 함께
사방으로 초록의 기운을 내뿜는
나무의 무수한 가지들처럼,
새로운 생을 꽃피우기 위해
더 깊고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는
나무의 보이지 않는 풍경처럼.

젊은 날의 시련으로부터
나를 지탱해줄 배움의 뿌리를 내려라.
이제 곧 나의 것이 될
저 넓은 세상을 향해 거침 없이
가지를 뻗어라.
강인한 봄의 생명력으로.

Issue & News

멈추지 않는 도전
오늘과 내일을 잇는 대학

중부권 최고의 명문대학을 넘어
세계 속의 글로벌 중심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청주대의 씩 없는 도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육과 연구, 환경, 그리고 사람에 대한
청대소식을 전합니다.



38 Focus On

2012학년도
학위수여식 개최 외

42 News Brief

표갑수 교수 등
교직원 10명 퇴임식
개최 외

44 People News

김찬석 교수,
취업을 위한 자기 PR
가이드북 출간 외

46 Special Lecture

사공영진 청주지방법원장
'꿈과 열정 그리고
끝없는 도전' 강연 외

Focus On



1

2012학년도 학위수여식 개최

지난 2월 22일 청주대는 청암홀에서 2012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을 열고, 총 2,959명에게 각각 학사 및 석사, 박사학위를 수여했다. 이날 행사는 국민의례, 학사보고, 학위증서 수여, 수석 졸업생 표창, 공로상 수여, 식사 및 축사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충청북도 약사회 부회장을 지낸 김선옥 씨(77)가 <가람과 노산 시조의 비교연구>라는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아 최고령 학위 취득의 기쁨을 누렸다. 한편 이번 졸업식에서는 외국인 유학생 172명도 함께 학위를 수여 받았다. 몽골 출신 첸겔다바삼부 씨(30)가 <몽골의 농촌 발전전략: 대한민국 새마을 운동의 교훈>이란 제목의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세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디자인 공모전인 '2012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서 레드닷상을 수상한 리우창 씨(26, 산업디자인)가 학사 학위를 취득하는 등 모두 1명의 박사과 21명의 석사, 150명의 학사가 배출됐다. 이날 학위수여식에서는 공예디자인학과를 졸업하는 윤수경 씨(22)가 영예의 수석졸업자로 선정돼 학교법인 청석학원 이사장상을 받았으며, 이밖에도 △배선가(27, 회계) △안중록(28, 행정) △지예은(23, 영문) △박은애(23, 응용화학) △김희진(23, 한문교육) △심소영(23, 간호) 씨가 각각 단과 대학 수석을 차지하여 총장상을 수상했다. 김윤배 총장은 식사를 통해 "졸업은 끝이 아니라 꿈과 희망의 실현을 위한 새로운 시작"이라며 "끊임없는 자기혁신과 성실한 자세로 꼭 원하는 목표를 이루라"는 말로 졸업생들을 응원했다.



2013학년도 신입생 입학식 및 예비교육 실시

2

지난 2월 20일 청주대 종합운동장에서는 2013학년도 청주대학교 신입생 3,151명의 입학식이 열렸다. 입학식은 국민의례, 학사보고, 입학허가 선언, 입학생 선서, 총장 환영사, 총동문회장의 학교 배치 증명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신입생 대표로 나선 심규보 씨(19, 간호학과)는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다하여 장래 국가의 초석이 될 것"이라는 내용의 선서를 했으며, 이에 김윤배 총장은 환영사에서 "청주대학교는 여러분이 원대한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 말하고, 신입생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육시설을 활용하여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59세의 적지 않은 나이로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한 만학도 홍성자 씨가 눈길을 끌었다. "선전께서 항상 다른 사람을 돕고 베풀며 살라는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다. 이를 지키기 위해 지난 3년간 죽도록 공부해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했다"고 밝힌 홍 씨는 골종양을 앓아 극심한 통증을 느끼면서도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한 시도 공부를 쉬지 않았다. "올 해 여러 곳의 대학으로부터 합격통지를 받았는데, 가족회의를 통해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하기로 결정했다"는 홍 씨는 "시련 뒤에는 반드시 행복이 온다고 생각한다. 지금 이 순간 나 자신이 대견하기도 하고,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도 나서 감회가 남다르다"는 소감을 밝히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한편 입학식을 마친 후 신입생들은 대학 측에서 제공한 무료 모의 토익(TOEIC) 시험을 치르고 이틀간의 예비교육과 입학식 일정을 모두 마치고 귀가했다. 청주대는 이번 시험결과를 교양필수 토익 수업인 실용영어의 강의를 신입생들이 수준별로 배정될 수 있도록 분반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앞서 입학식 하루 전날인 2월 19일에는 신입생 예비교육 개회식이 있었다. 행사에 참석한 2,500여 명의 신입생들은 1박 2일 동안 학교 측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청주대 신입생으로서의 새로운 출발을 준비했다.

Focus On



3

제2창학 위한 경영컨설팅 수행, 혁신 작업 추진

청주대학교가 '2020년 20위권 달성, 중부권 최고 명문대학으로의 도약'이라는 구체적인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본격적인 혁신 작업에 들어간다. 청주대는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해 말 외국계 자문회사인 '액센츄어(Accenture)'에 경영 컨설팅을 의뢰했다. 약 4개월 간의 심층적인 분석과 진단을 마친 액센츄어는 △비전 및 발전전략 △재정 건전성 △학문단위 △행정체제 △인사제도 등의 영역에 걸친 혁신 방안을 도출해냈다. 이번 보고서는 청주대에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된 취업, 연구, 산학협력, 입시 부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발전전략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될 등록금 인하 압박에 대비하여 기존의 수익사업을 혁신하는 한편, 신규사업의 개발을 통해 수익사업의 다각화를 추진하는 재정 건전성 확보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학문단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학과 평가를 통해 경쟁력 있는 미래지향적 학문 단위로 개편해나갈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기존의 본부 중심에서 탈피하여 자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학과가 주체가 되는 등 전반적으로 조직을 개편하는 행정체제 개선 방안도 내놓았다. 인사제도 분야에선 '더 열심히 하고 성과를 내는 교수와 직원에게 더 많은 보상이 주어지는' 평가 및 보상제도의 개선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가를 필요로 하는 일부 부서의 경우는 외부전문가의 과감한 영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청주대는 컨설팅 제안 중 즉시 실행할 수 있는 과제는 실무진을 통해 이미 추진 중에 있으며, 구성원 간의 협력이 필요한 부분에는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찬곤 기획처장(컴퓨터정보공학과 교수)은 "지금은 컨설팅 업체의 제안에 대해 시행여부를 판단 중에 있으며, 꼭 필요한 사안들은 앞으로 시기와 범위를 결정한 후, 철저히 준비하여 단계적으로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총학생회, 출범식에서 어린이재단과 후원 협약 체결

지난 4월 11일, 청주대 종합운동장에서 제46대 총학생회의 특별한 '사랑나눔 출범식'이 열렸다. 권성태 총학생회장을 비롯한 학생회장단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저소득층 아동을 돕기 위한 '함께 꿈꾸는 미래' 후원 협약을 맺으며 새로운 총학생회의 출범을 알리는 독특한 방식을 선택했다. 이번 후원 협약과 관련하여 자발적으로 후원에 나선 총학생회 및 자치기구 학생회 10개, 학과 학생회 49개는 앞으로 59명의 저소득층 아동을 지원하게 된다. 각 학생회는 해당 아동들에게 매월 30,000원씩을 후원하며, 추후 학업을 돕기 위한 과외 봉사과 더불어 아동들의 청주대 축제 초청, 놀이공원 방문 등의 봉사활동을 꾸준히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식은 김윤배 총장을 비롯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이규성 부회장, 한전북 충북지역본부장, 김진호 총동문회장 등과 2,500여 명의 청주대학교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열렸으며, 올 한 해 동안 청주대 학생회 측에서 어린이들에게 기부하는 금액은 모두 15,930,000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에서 권성태 총학생회장(레이저광정보공학 4)은 "일반 시민들이 대학 문화를 음주 등의 부정적인 부분으로 많이들 인식하는 것 같아 안타까웠다. 이번 출범식에 맞춰 청주대 학생회의 전통인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각 학과에 참여의사를 타진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호응해줬다. 이번 캠페인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정기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할 계획"이라는 당찬 포부를 밝혔다.

4

News Brief

청주대, 표갑수 교수 등 교직원 10명 퇴임식 개최



지난 2월 28일, 청주대학교는 본관 세미나실에서 교수 5명과 직원 5명의 퇴임식을 열고, 정년 및 명예퇴임을 하는 교직원들을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퇴임식에서는 표갑수(사회복지), 전환성(신문방송), 이주신(전자공학), 김홍철(한문교육), 엄기홍(회화) 교수와 직원 김경환(경리팀), 유창용(취업지원팀), 김창균(시설운영팀), 김영일(구매관리팀) 씨가 정년퇴임을, 이희숙(교수연구지원팀) 씨가 명예퇴임 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 김홍철 교수와 엄기홍 교수에게는 황조근정훈장이, 표갑수 교수와 이주신 교수에게는 녹조근정훈장이, 전환성 교수에게는 근정포장이, 김경환 씨와 유창용 씨에게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표창장이 각각 전수됐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과 한반도’ 학술세미나 개최



지난 5월 2일, 통일교육위원 충북협의회(회장 김윤배)는 청주대학교 고위관리자과정 세미나실에서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과 한반도'를 주제로 청주대 평화안보연구소와 함께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김윤배 회장의 개회사로 시작한 이번 세미나는 '남북한 정부의 한반도 정책의 쟁점'을 주제로 한 제1회회의와 '한반도 정세변화의 동인'을 주제로 한 제2회회의로 진행됐다. 제1회회의는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연구원의 '오바마 행정부 2기 북미관계와 한국의 대응정책', 연세대 한석희 교수의 '시진핑 체제의 등장과 한반도', 청주대 유호근 교수의 '북한핵실험과 동북아 안보질서의 변화'를 주제로 한 발표에 이어 한양대 김성수, 선거연수원 신두철, 중앙대 장혜영 교수의 토론이 우리대학 김영재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충남대 박재정 교수의 사회로 이어진 제2회회의에서는 통일연구원 여인근 선임연구원의 '박근혜 정부 대북정책 기조와 과제', 공군사관학교 박봉규 교수의 '김정은 체제의 대남정책의 쟁점과 과제', 서울시립대 김석우 교수의 '남북관계 변화의 쟁점과 가능성'에 관한 발표와 중앙대 조윤영, 대전대 박광기, 이화여대 박인휘 교수의 토론이 이어졌다.

청주대 외국인 유학생, 치안서포터즈 발대식 개최



현재 청주대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이 '외국인 유학생 치안서포터즈'로 나선다. 지난 4월 16일, 청주 상당경찰서 4층 회의실에서 청주대와 청주 상당경찰서(서장 김덕환)는 '다문화 4대약 체결 및 외국인 밀집지역 범죄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양측 관계자 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2013년 유학생 치안서포터즈 발대식'을 가졌다. 이날 총 30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청주대 측의 추천을 통해 치안서포터즈로 위촉되었으며, 이들은 올 한 해 동안 각종 범죄와 사고로부터 유학생들의 안전을 보호하는데 자발적으로 앞장서는 것은 물론, 다문화 봉사 활동 등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조슬기, 아시아대학태권도선수권대회 국가대표 선발

우리대학 체육교육과 2학년에 재학 중인 조슬기 선수가 아시아대학태권도선수권대회 헤비급 국가대표로 선발됐다. 지난 4월 17일에 열린 아시아대학태권도선수권대회 파견 국가대표 선발대회 헤비급에 출전한 조슬기 선수는 8강전에서 용인대 문정훈 선수를 4대 3으로 꺾고, 4강전에서 국가대표 출신의 중원대 박현준 선수를 연장전 접전 끝에 1대 0으로 누르고 결승에 올랐다. 결승전에서는 우석대 정상완 선수를 3대 2로 물리치고 헤비급 우승과 함께 아시아대학태권도선수권대회 국가대표 선발을 확정 지었다.



마세건, 세계청소년펜싱선수권대회 남자 에페 동메달

우리대학 체육교육과에 재학 중인 마세건 선수가 지난 4월 11일 크로아티아 포렌치에서 열린 2013 세계청소년펜싱선수권대회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지난 3월, 강원도 양구에서 열린 청소년대표선발전에서 우승하며 이번 대회에 참가하게 된 마세건 선수는 남자 에페 개인전에서 146명의 출전선수 중 당당히 3위에 오르며, 개인전에 출전한 한국대표로서는 유일하게 메달을 따냈다. 마 선수는 16강전에서 우크라이나 안드레이 선수를 15-13으로 꺾고, 이어서 열린 8강전에서는 이탈리아의 마르코 선수에게 15-14의 극적인 한 점차 승리를 얻으며 메달권에 안착했지만, 4강전에서 스페인 유렌 선수에게 15-10으로 아깝게 패하며 3위에 머물렀다. 마세건 선수는 "세계대회 개인전에서 3위라는 좋은 성적을 내게 되어 기쁘다.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는 더욱 좋은 경기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청주대와 김윤배 총장, 대한적십자사 금장 수상

청주대학교와 김윤배 총장이 대한적십자사가 수여하는 적십자회원유공장 금장을 각각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 3월 21일, 적십자 특별회비의 납입을 위해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를 찾은 김윤배 총장은 성영용 충북적십자 회장으로부터 청주대학교와 김 총장 개인에게 수여하는 포장증을 각각 전수받았다. 적십자회원유공장 금장은 500만 원 이상을 기부한 기관이나 개인에게 수여되는 것으로, 청주대학교는 지난 2000년부터 지난해에 이르기까지 총 900여 만 원의 특별회비를 납입했으며, 김윤배 총장 또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개인적으로 대한적십자사에 500여 만 원의 기부금을 전달해왔다.



청주대, 항공운항과 실습용 최첨단 항공기 구매



청주대가 항공운항과 학생들의 실습을 위해 최첨단 항공기를 구매했다. 김윤배 총장을 비롯한 대학 관계자들은 지난 3월 중순 오스트리아 다이아몬드 항공기 제작사를 직접 방문해 국내에서는 최초로 전 기체가 탄소복합소재로 제작된 최첨단 경항공기인 DA-40NG 4대를 구매하기로 하였으며, 비행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 같은 기종의 비행시물레이터 1대도 함께 구매하기로 했다. 항공기는 오는 10월쯤 국내로 도입해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3월부터 학생들의 비행교육 실습에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청주대가 항공기 구입에 나선 것은 최근 3년 사이 5개 대학에 신설된 항공운항과의 차별화를 위해서다. 조환기 항공운항과 교수는 "항공운항과를 신설한 전국 5개 대학 중 청주대만이 첨단 기종의 비행실습용 항공기를 갖추게 됐다"며 "앞으로 과감한 투자를 통해 우리대학 항공운항과를 전국 최고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치위생학과·간호학과 졸업예정자, 100% 국가시험 합격

2013년 간호학과 졸업예정자 전원도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했다. 한국보건 의료인국가시험원이 주관한 '제53회 간호사 국가시험'에 응시한 청주대 간호학과 1기 졸업예정자 38명은 지난 2월 14일 모두 합격 통보를 받았다. 앞서 치위생학과 졸업예정자 25명 전원도 '제40회 치과위생사 국가시험'에 모두 합격한 바 있어, 청주대 보건 의료대학이 충북 보건 의료인력 양성의 새로운 중심으로 주목 받고 있다. 특히 대학졸업자들의 취업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청주대 보건 의료대학 간호학과와 치위생학과 1기 졸업예정자 63명 전원은 서울대병원, 고려대의료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우수 의료기관에 취업이 확정돼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People News

Faculty News 교수소식

1 김찬석 교수, 취업을 위한 자기 PR 가이드북 출간



광고홍보학과 김찬석 교수가 취업 성공을 위한 자기 PR 매뉴얼 <Oh my Job>을 출간했다. 이 책은 국내 최초 자기 PR 전문서적으로, 전문가의 입장에서 많은 구

직자들이 어떻게 하면 채용시장에서 자신을 정확하게, 성공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다. 김찬석 교수는 현재 '취업을 위한 자기 PR'이라는 정규 과목을 개설해 재학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2 김영재 교수, 한국정치학회 회장 선출



정치외교학과 김영재 교수가 한국정치학회 차기 회장으로 선출됐다. 지난해 12월 8일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한국정치학회 정기총회에서 차기 회장으로 선

출된 김영재 교수는 오는 2014년부터 1년 동안 회장으로 활동하게 됐다. 한국정치학회는 1953년에 설립된 국내 최고, 최대의 학술단체로, 약 2,000여 명에 달하는 국내외 교수, 학자, 대학 및 연구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손희준 교수, 안전행정부장관상 수상



행정학과 손희준 교수가 안전행정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지난 4월 16일, 손 교수는 안전행정부로부터 지방세제 발전 및 지방자주재원 확충 등 지방세와 지방

재정 분야에 대한 연구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장을 수여 받았다.

4 한천구 교수, 국무총리상 수상



'콘크리트 박사'로 유명한 건축학과 한천구 교수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제3회 친환경주택 건설기술 및 신자재 개발대상'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한천구 교수는 버블시트를 이용한 동절기 콘크리트 시공과 기초매트매스콘크리트의 단열보온양생공법을 개발하여 건축물의 친환경성, 품질확보, 작업성 및 경제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2011년부터 매년 주택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관련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친환경 주택 건설기술 및 신자재 개발대상'의 정부포상을 실시하고 있다.

5 박문열 교수, 제26대 문화재위원회 동산문화재분과 위원장 임명



문헌정보학과 박문열 교수가 문화재청 제26대 문화재위원회 동산문화재분과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문화재위원회는 지난 5월 7일 서울 국립고궁박물관 강당

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2015년 4월 30일까지 2년 동안 활동할 위원장단을 호선으로 선출했다. 이날 선출된 제26대 문화재위원회는 앞서 5월 2일에 위촉된 문화재위원들과 함께 우리 문화재 보존과 관리, 활용을 위한 폭넓은 자문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문화재위원회는 문화재청이 위촉하는 8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과 함께 위원회의 소관사무와 종류별 문화재를 분장하기 위해 9개의 분과위원회를 두고 있다. 박문열 교수가 위원장으로 활동하게 된 동산문화재분과는 건조물을 제외한 유형문화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권장하게 된다.

6 김우식 교수, 청주시 공약이행 시민평가단장으로 활약



행정학과 김우식 교수가 민선 5기 3년차 한범덕 청주시장의 52개 공약사업 추진 상황 평가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지난 2010년 전문가와 일

반시민 등 49명으로 발족된 청주시 공약이행 시민평가단은 공직자들의 공약 추진상황을 면밀하고 분석하고 평가해 그 결과를 청주시민들에게 알리고, 부진한 사업은 이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민선 5기 3년차 평가 대상은 5개 분야 52개 공약사업으로, 초중등 무상급식, 일자리 4만개 창출, 저소득층 주거개선사업 확대, 시민 문화공간 조성, 녹색교통수단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7 광동철 교수, '책 읽는 청주' 후보 도서 선정



문헌정보학과 광동철 교수가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책 읽는 청주 추진위원회는 지난 3월 22일 청주시립도서관에서 회의를 갖고 올해의 '책 읽는 청주'

후보 도서를 선정했다. 각계의 전문가와 일반시민들이 추천한 40여 권의 책 가운데 최종 선정된 5권의 책은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최연혁) ▲여울물 소리(황석영) ▲간송 전형필(이충렬) ▲홍길동전(허균) ▲책은 도끼다(박웅현) 등이다. 책 읽는 청주 추진위원회는 시민투표 선호 순위에 따라 후보 도서를 3권으로 압축한 뒤 제3차 추진위원회 회의를 거쳐 최종 대표도서 1권을 결정하게 된다.

Alumni News 동문소식

1 조철호 동문, 충북예총 신임회장으로 선출



조철호(국문학과, 68년 졸업) 현 동양일보 회장, 한국시낭송전문협회장) 동문이 지난 1월 31일 제52차 충북예총 정기총회에서 신임회장에 만장 일치로 추대됐

다. 조 회장은 단체를 보호하고 회원들이 창작에 몰두할 수 있도록, 향후 예총 운영방향에 대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2 연방희 동문,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상임대표 선임



연방희(경제학과, 78년 졸업) 동문이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신임 상임대표로 선임됐다. 상임대표를 맡아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연방희 동문은 세무사 사

무소를 운영하면서 충북산악연맹회장, 천연염색가 등의 활동도 병행해왔다. 환경운동연합은 2015 비전과 과제, 지역과 관련한 환경운동과 실천에 앞장설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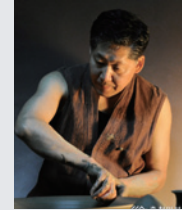
3 한재희 동문, 충북건축사협회 제26대 회장 취임



한재희(건축학과, 84년 졸업) 동문이 충북건축사협회 제 47대 정기총회에서 26대 회장에 당선됐다. 신임 한재희 회장은 취임사에서 "충북건축사협회가 앞으로 건축사들의 생존의 장, 희망의 장을 만들어 나가

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재희 동문은 우리대학 건축학과와 대학원을 졸업한 뒤 충청북도 건축심의 위원, 청주지역 건축사협회 회장, 충청북도 감리제도 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4 김기종 동문, 한국예술문화명인 도예부문 선정



도예가로 활동하고 있는 김기종(공예학과, 87년 졸업, 토지도예/청원예총회장) 동문이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가 주최한 한국예술포럼인 도예부문 명인

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한국예술문화명인으로 선정되면 명인인증서 및 명인패가 수여되고, 명인연감 제작과 함께 한국예총 특별회원으로 위촉된다. 충북 지역에서는 단독으로 선정된 김기종 동문은 지금까지 8차례의 개인전과 42회의 초대전, 180여 회의 단체전 등을 열며 27년간 오직 도예가로서의 외길을 걸어왔다. 지난 2008년에는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공로를 인정 받아 청주시장 감사패와 지식경제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5 오애리 동문, LX대한지적공사 김포지사장 취임



오애리(지적학과, 85년 졸업) 동문이 대한지적공사 창립역사상 최초의 여성지사장 자리에 올랐다. 대한지적공사 경기도본부 김포지사장으로 취임한 오애리 동문

은 현장 업무를 총괄하는 '아전지휘관'으로 활약할 예정이다. 한편, 오애리 동문은 GIS(복합지리정보시스템) 분야 석사학위를 받은 공사 최초의 여성 지적측량기사이자 측량전문가다. 1985년 LX대한지적공사 기술직 신입사원으로 입사한 이후 늘 '여성 최초'라는 타이틀을 스스로 경신해왔다.

6 박승희 동문, 제12대 영동소방서장 취임



박승희(행정학과, 88년 졸업) 동문이 제12대 신입 소방서장에 취임했다. 1990년 제6기 소방간부후보생 졸업과 동시에 서산소방서 예방계장을 시작으로 소방인의

길을 걸어온 박승희 동문은 매사에 합리적이고 강한 책임감으로 소방인들의 존경을 받아왔다. 박승희 동문은 그동안 금산소방서장, 당진소방서장을 거쳐 충북소방본부 방호구조과장으로 근무해왔다.

7 송정화 동문, 청원문화원 신임 회장 취임



송정화(법학과, 03년 졸업) 동문이 지난 3월 14일 청원군민회관 대강당에서 제8대 청원문화원 신임 회장에 취임했다. 송정화 동문

은 취임사에서 "문화를 통해 삶의 가치를 높이고 건전하고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송정화 동문은 오송농협 조합장과 청원군체육회 이사, 란 정신문화선양회 이사, 청원문화원 부원장 등을 역임했다.

8 김진식 동문, 충청북도 정부특별보좌관 임용



김진식(법학과, 76년 졸업) 동문이 지난 2월 18일 부로 민선5기 충청북도 정부특별보좌관에 임용되었다. 김진식 동문은 그동안 충청북도 공보관, 농정본부장, 바

이오사업추진본부장 등을 거쳐 중기센터본부장을 역임했다. 원만한 성격과 특유의 친화력을 갖추었다는 평을 받고 있는 김진식 특보는 앞으로 대안론, 대기관, 대의회를 상대로 정부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Special Lecture

명사초청 특별강좌
2013년 3월~5월

3월

3월 27일

사공영진 청주지방법원장 ‘꿈과 열정 그리고 끝없는 도전’

청주대 청암홀에서 열린 명사초청 특별강좌에서는 사공영진 청주지방법원장이 강연자로 나서 청주대 학생들을 만났다. ‘꿈과 열정 그리고 끝없는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진행한 사공 법원장은 “자주 웃어야 한다. 화를 내야 하는 상황에서도 웃을 수 있는 여유만 가진다면, 주변이 긍정의 힘으로 가득 차게 된다”고 말하며 본격적인 강연을 시작했다. 또한 “꿈을 꾸는 주체는 바로 여러분”이라며, 학생들에게 “마음껏 꿈을 꾸되 긍정적인 사고와 도전정신, 적극적인 실천으로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라”고 진심 어린 당부를 잊지 않았다. 사공영진 법원장은 경북 군위 출신으로 서울대에서 법학을 전공했고, 제23회 사법고시를 통해 법조계에 입문했다. 1985년 대구지법 판사, 1999년 대구지법 부장판사, 2003년 대구지법 가정지원장, 2005년 대구고법 부장판사, 2007년 대구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하고, 2012년 2월 청주지법 제51대 법원장으로 취임했다.



4월

4월 3일

전병찬 (주)에버다임 대표이사 ‘Build the Future’

(주)에버다임 전병찬 대표이사가 청주대 청암홀에서 명사초청 특별강좌를 진행했다. ‘Build the Future’라는 주제로 펼쳐진 이번 특별강좌에서 전 대표는 “자산가치가 반으로 떨어진 존폐의 위기 속에서 위험이 아니라 기회라고 생각하며 수출에 집중했던 것이 오늘의 성공을 이룰 수 있던 계기”라고 말했다. 이어서는 학생들에게 “항상 긍정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 대표이사는 청주중, 청주공고를 거쳐 청주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 행정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1981년 대우중공업에 입사한 전병찬 대표이사는 1994년 퇴사 후 (주)에버다임의 전신인 한우건설기계를 창업했다. 2003년 에버다임을 코스닥에 상장했고, 2008년 ‘수출1억불’ 탑을 수상한데 이어 대통령금탑산업훈장을 받았다.



4월 10일

스티브 김 꿈희망미래재단 이사장 ‘행복을 주도하는 삶’

청주대 청암홀에서 ‘행복을 주도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 스티브 김 꿈희망미래재단 이사장은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에 있으며, 행복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하며 강연을 시작했다. 2천 달러를 들고 미국으로 건너간 지 30년 만에 20억 달러의 부를 일궈냈으므로 미국 기업인들 사이에서 ‘아시아의 빌 게이츠’로 불리는 스티브 김 이사장은 이번 명사초청 특별강좌에서 “즐거야 청춘이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즐겁고 행복해야 능률이 오른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서강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1976년 미국에 건너가 1984년 Fibermux Corp사를 창업하여 1991년 美 ADC Telecom에 5,400만 달러에 매각했다. 또한 1993년 설립한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업체 Xylan을 3년 만에 나스닥에 상장하고, 전 세계 60개국에 판매망을 구축하며 연 매출 3억 5천만 달러를 달성하기도 했다. 1999년 프랑스 알카텔사에 Xylan사를 20억 달러에 매각한 김 이사장은 2001년 ‘꿈희망미래재단’을 설립한 후 서울 및 연변에 있는 600여 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왔고, 캄보디아, 네팔, 필리핀 등에 교사와 도서관을 지원하는 등 청소년 복지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5월

5월 1일

김응권 교과부 전 차관 ‘항상 스스로에게 책문하라’

청주대 청암홀에서는 김응권 교육과학기술부 전 차관의 특강이 열렸다. 명사초청 특별강좌의 형태로 진행된 이번 강연은 ‘항상 스스로에게 책문하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 김 전 차관은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남들과 구별되는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생들의 주요 관심사가 취업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잘 알고 있지만 스펙이 모든 걸 결정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항상 건강을 유지하며, 각종 사회 현상에 대해 관심을 갖고 분석하면서 자신만의 관점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며, 강연을 찾은 학생들에게 “항상 도전하고 실천하는 사람, 신뢰받는 사람이 되어 달라. 그리고 무엇보다 좋아하고 즐기는 사람이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당부했다. 김응권 전 차관은 충북 보은 출신으로 청주교과와 서울대 사회교육학과를 졸업했다. 대학에 재학 중이던 1984년 제28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그는 교육인적자원부 대학행정지원과장, 국제교육협력과장, 재정기획관, 교육부총리 비서실장, 외교통상부 주미대사관 공사 참사관,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지원실장 등을 거쳐 지난 2011년부터 올해 3월까지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으로 근무했다.



5월 3일

소마 히로히사 주한일본공사 ‘한·일 경제교류 및 전망’

청주대 인문대학 세미나실에서는 주한 일본대사관 소마 히로히사 경제공사의 특별강연이 열렸다. ‘한·일 경제교류 및 전망’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특강은 일어일문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달 개최하고 있는 취업특강의 일환으로 실시된 것이다. 소마 히로히사(相馬弘尚) 공사는 도쿄대학 법학부를 졸업하고, 1987년 일본 외무성에 입사했다. 1991년 주한 일본대사관 이등서기관을 시작으로, 외무성 아시아국 북동아시아과 과장보좌, 경제협력국 국제기구과 수석사무관, 재제네바국제기구 일본정부대표부 일등서기관, 외무성 경제국국제무역과 지적재산실장, 내각사무관 내각관방 내각참사관 등을 거쳐 2012년 9월 주한 일본대사관 경제공사로 발령받았다.



김영환 19대 국회의원 ‘창조적 상상력으로 최초로 도전하라’

청주대 청암홀에서는 김영환 의원의 명사초청 특별강좌가 있었다. ‘창조적 상상력으로 최초로 도전하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진행한 김 의원은 “공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아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 여러분은 꼭 공부를 즐기길 바란다”는 말로 강연을 시작했다. 또한 그는 “고통이 숲을 만든다. 나도 많은 좌절과 고통, 결핍을 겪었기에 나 자신의 틀을 깨트리며 더 나은 ‘나’가 될 수 있었고, 의정활동에도 큰 도움을 받고 있다”며, 학생들에게 “개척정신과 도전정신을 가지고, 창조적 상상력을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영환 의원은 충청북도 괴산 출신으로 청주교과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치과대학에 입학했다. 재학 중이던 1977년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으로 20개월 간 투옥되었으며, 이후 현상수배, 노동자 생활 등을 겪으며 입학한지 15년 만에 졸업장을 받았다. 1996년 민주당에 입당하며 정계에 입문했고, 15대, 16대, 18대, 현 19대까지 4선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1986년 <시인>, <문학의 시대>를 통해 등단한 이후 많은 시집과 수필집, 평론집 등을 출간한 시인이기도 하다.



5월 15일

아름다운 나눔을 통해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청주대의 꿈

중부권 최고의 명문대학, 세계 수준의 글로벌 명문대학을 향해 도약하고 있는 청주대학교의 발전기금 조성사업이 기부자들의 정성과 노력에 힘입어 눈부신 성과를 거두었다. 청주대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꿈꾸고 희망하는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발전기금 조성사업은 앞으로도 꾸준히 지속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청주대학교는 지역사회의 꿈을 아우르는 진정한 글로벌 대학으로 거듭날 원동력을 얻게 될 것이다.

발전기금 종류

01 대학발전기금_교육환경개선기금

기부자가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기부하는 기금으로, 주로 대학에서 해당 기간에 주력하는 사업이나 교육인프라 구축에 쓰인다.

◎대학의 특성화 사업 지원

- 선택과 집중, 강한 학부를 위한 선진적 전공 시스템 도입
- 다양한 분야의 초일류 연구소 육성 지원

◎글로벌 캠퍼스 교육환경 구축 사업

- 캠퍼스 국제화 사업
- 교육설비, 기자재 등 확충 지원
- 장애학생 복지시설 확충

◎국제교류 및 국제화 지원 사업

- 교류협정을 체결한 해외 대학과의 학생 및 학술 교류
- 해외 자매대학과의 교류 확대

◎디지털 교육인프라 구축 사업

- 충북권역 이러닝 지원센터 지원
- 디지털 강의실 확충

02 장학기금

재학생들을 지원하여 우수한 인재로 키우기 위한 장학기금으로, 기부자가 대학(원)이나 학부(전공) 및 학과 등 장학금의 용도를 정하면, 그 목적에 맞도록 해당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지급된다.

03 대학발전기금_연구기금

세계적 연구성과를 이끌기 위해 교수들의 학문적 연구를 지원하며, 연구기금은 교수와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는 우수한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이끄는 원동력이 된다.

04 대학발전기금_국제화기금

전 세계 90여 개 자매대학과의 학생교류, 학술교류 등을 지원하며 세계적인 석학이나 경영자들을 초빙하여 학생들을 글로벌 시대에 적합한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기금이다.

◎글로벌리더 육성 기금

◎자국 유학생 장학기금

◎국제 한국학연구기금

◎세계석학 초청 강연기금

◎세계경영자 초청 강연기금 등

05 대학발전기금_문화예술기금

세계문화를 선도하는 문화예술 강국,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기 위해 공연 및 연극, 영화, 회화, 한국음악, 한국무용, 디자인 등 다양한 관련 전공과 학부의 교육, 연구기금으로 쓰이는 기금이다.

◎공연예술지원기금

◎연극/영화지원기금

◎한국음악/한국무용 발전기금

◎디자인(산업/시각/공예/패션) 발전기금

◎회화/만화 발전기금

기부 방법

기부 참여 안내

◎약정서 작성

은행이나 우체국을 이용할 경우 작성된 기탁서를 FAX 또는 우편으로 대외협력팀에 전달하고, 해당 계좌번호로 무통장 입금(이체)한다.

◎온라인 무통장 입금

발전기금 입금계좌로 입금 후 입금내역을 대외협력팀에 전달한다.

◎직접 방문

청주대학교 대외협력팀 방문 후 직접 발전기금액 및 용도를 약정한다.

◎급여이체

청주대 교직원의 경우 매월 급여의 100,000원 단위 이하로 기탁할 수 있다.

※유가증권 또는 현물 등 자산을 기탁할 경우에는 직접 방문 또는 대외협력팀으로 연락하여 학교 담당자가 기부자를 방문함

담당부서 연락처

충북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298

(우편번호 : 360-764)

청주대학교 대외협력실 대외협력팀

Tel : (043)229-8011, 8012

Fax : (043)229-8015

e-mail : obwn@cju.ac.kr